

# 한국문학탐방Ⅲ

발표 자료집

2014

(4월 2일 ~ 4월 4일)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일부)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 한국문학탐방Ⅲ

발표 자료집

2014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 목 차

1. 탐방단 구성 ---- 7p
2. 버스 좌석표 ---- 8P
3. 방 배정표 ---- 10P
4. 답사 일정표 ---- 13P
5. 답사 보고서 ---- 14P
6. 지도 ---- 15P
7. <1조> 맹사성 ---- 16P
8. <2조> 한용운 ---- 24P
9. <3조> 신석정 ---- 33P
10. <4조> 정극인 ---- 43P
11. <5조> <정읍> ----49P
12. <6조> 정지용 ---- 54P
13. <7조> 온달 설화 ---- 60P
14. <8조> 원호 ---- 64P
15. 참가자 연락처 ---- 70P

## 모범 답사자

평가 및 심사: 인솔교수

### <1일차>

우수 소감문 작성자: 서채린, 이상은, 이예나, 김지수

우수 조원(조장 추천): 서채린, 박현, 이다영, 변지선, 남연재, 육소연, 문소윤, 서예림

### <2일차>

우수 소감문 작성자: 서채린, 김예림, 이수진, 김수연, 김다혜, 고현하, 현진, 홍정인

우수 조원(조장 추천): 이은혜, 정예인, 김상연, 오유나, 황수정, 김다혜, 김민정, 유수호

종합 우수: 홍정인, 이다영, 김다혜, 서채린

## 메 모 장

# 한국문학탐방단 구성

전체진행 : 학생회장(김태윤), 발표사회 : 답사부장(최성은), 숙식관리 : 부학생회장(윤희정)

재정 및 진행기록 담당: 박예진 조교

조	탐방대상	조장	1학년	재 학생
1	맹사성	윤영식	곽동호, 정예찬, 김예림, 서채린, 정서우	윤희정, 이은혜
2	한용운	이지원	김민호, 류창석, 김은비, 송수림, 정예인	박 현, (장성은)
3	신석정	홍정인	김상연, 강윤아, 김지수, 안혜린, 한가희	김연수, 이다영
4	정극인	허선호	김주민, 고은지, 김희인, 오유나, 현 진	남윤주, 변지선
5	<정읍>	정지안	김태영, 고현하, 남연재, 이기일, 황수정	(길창인), (김지예)
6	정지용	오효석	박상현, 김다혜, 박은지, 이상은	육소연, (박은지), (진수연)
7	<온달>설화	박경하	박선욱, 김민정, 박현경, 이소정	문소윤, (남동현)
8	원호	최양선	유수호, 김수현, 서예림, 이에나	이수진, (기드온), (채상윤)
*인솔관리 도우미			임명철, 최순택	

< 인솔관리: 김태윤, 윤희정, 최성은 편집: 이수진 > \* ( ):단순 참가

## ※ 지도 교수: 답사 및 토의 지도

- 1, 2조: 오춘택 교수님 / - 3, 4조: 이기인 교수님
- 5, 6조: 이병기 교수님 / - 7, 8조: 박슬기 교수님
- 단순참가 및 기타 학생: 김명준 교수님

<배차> 총 75명

1호차: 1조, 3조, 5조, 7조, 김명준, 이기인, 유명희, 박예진, 김태윤

2호차: 2조, 4조, 6조, 8조, 오춘택, 이병기, 박슬기, 최성은, 윤희정

## <준비물>

공동 준비물: 캠코더, 카메라, 넷북, 지도, 비상약 등

개인 준비물: 의복, 운동화, 자료집, 필기도구, 학생증, 카메라, 우산, 상비약, 세면도구 등

## <주의사항>

유적 관람 시간: 발표와 자유 관람을 반씩

유적 관람할 때: 개인행동도 조별로 실시할 것

명찰은 반드시 패용할 것

## 버스 좌석표 1호차

기사님			계단	
김명준 교수님			학생회장 김태윤 (무전기)	
기획부장 오효석 (무전기)			조교 박예진	
이기인 교수님			유명희 교수님	
육소연 이수진			남윤주 변지선	
고은지 김희인			정지안 12박은지	
오유나 현 진			김다혜 14박은지	
유수호 김주민			이상은 이에나	
고현하 남연재			김수현 서예림	
이기일 황수정			차량 위생 담당	
박상현 김태영			최양선 허선호	
			길창인	
임명철	최순택		남동현	박경하

버스 좌석표 2호차

기사님			계단	
답사부장 최성은 (무전기)			이병기 교수님	
오춘택 교수님			박슬기 교수님	
대학원생 윤숙			이은혜    윤희정 (무전기)	
윤영식    곽동호			홍정인    이다영	
서채린    정서우			강윤아    김지수	
김예림    이지원			안혜린    한가희	
김민호    류창석			김상연    박선욱	
김은비    송수림			정예찬	
정예인    박현경			김민정    이소정	
차량 위생 담당			문소윤    김연수	
박    현    장성은				
기드온	김지예		채상윤	진수연

## 한국문학탐방 방 배정표

1일차: 대명콘도 변산 ※ 카드키, 자동 폐문 주의

2일차: 대명콘도 단양 ※ 일반키

### 남학생 1실 - (210 / 2401) 호

재학생		신입생	
학번	이름	학번	이름
08/ 방장	최성은	14	김민호
09	김민우	14	박상현
11	길창인	14	곽동호

### 남학생 2실 - (283 / 2402) 호

재학생		신입생	
학번	이름	학번	이름
08 / 방장	임명철	14	류창석
09	박경하	14	박선욱
10	기드온		
13	윤영식		

### 남학생 3실 - (212 / 2403) 호

재학생		신입생	
학번	이름	학번	이름
08 / 방장	채상윤	14	김상연
10	남동현	14	유수호
10	오효석	14	김태영
13	최양선		

### 남학생 4실 - (213 / 2319) 호

재학생		신입생	
학번	이름	학번	이름
09 / 방장	최순택	14	김주민
11	장성은	14	정예찬
13	허선희		
13	박 현		

여학생 1실 - (214 / 2301) 호

재학생		신입생	
학번	이름	학번	이름
12 / 방장	윤희정	14	서채린
12	정지안	14	정서우
		14	김예림

여학생 2실 - (215 / 2302) 호

재학생		신입생	
학번	이름	학번	이름
12 / 방장	이은혜	14	송수림
12	홍정인	14	정예인
		14	김은비

여학생 3실 - (216 / 2303) 호

재학생		신입생	
학번	이름	학번	이름
12 / 방장	박은지	14	한가희
12	남윤주	14	고은지
		14	서예림

여학생 4실 - (217 / 2304) 호

재학생		신입생	
학번	이름	학번	이름
12 / 방장	이다영	14	강윤아
12	변지선	14	김지수
		14	안혜린

여학생 5실 - (218 / 2305) 호

재학생		신입생	
학번	이름	학번	이름
13 방장	이수진	14	고현하
13	문소윤	14	남연재
		14	이기일

여학생 6실 - (219 / 2306) 호

재학생		신입생	
학번	이름	학번	이름
13 방장	육소연	14	황수정
13	이지원	14	김다혜
		14	박은지
		14	이소정

여학생 7실 - (220 / 2307) 호

재학생		신입생	
학번	이름	학번	이름
13/ 방장	김연수	14	이상은
	신입생	14	김민정
14	김수현	14	박현경

여학생 8실 - (211 / 2308) 호

재학생		신입생	
학번	이름	학번	이름
10 방장	김지예	14	김희인
10	진수연	14	오유나
		14	현 진
		14	이에나

## <답사 일정표>(2014학년도)

1일차: 충남(아산, 홍성) 전북(부안) / 2일차: 전북(태인, 정읍) 충북(옥천)/ 3일차: 충북(단양, 제천)

	1 / 04.02.(수)	2일차 / 04.03.(목)	3일차 / 04.04.(금)
08시	30 학교 집합 및 출발(총 3시간)	07시 30 조식 버스로 출발(식당) 07시 40 조식(30분) 08시 10 채석강(50분)	07시 40 조식
09시	50 여주휴게소(20분)	40 이동(1시간 20분)	00 이동(40분) 40 단양 온달산성(2시간) <u>&lt;7&gt; 발표: &lt;온달&gt; 설화</u> <u>/단체사진(온달기념관 앞)</u>
10시			
11시	20 아산 맹씨행단(40분) <u>&lt;1조&gt; 발표: 맹사성 /</u> <u>단체사진(은행나무 앞)</u> 50 이동(10분)	00 무성서원(40분) <u>&lt;4조&gt; 발표: 정극인</u> <u>/단체사진)</u> 30 이동(30분)	40 이동(10분) 50 중식(50분)
12시	10 중식(30분) 50 이동(1시간 30분)	00 정읍사공원(30분) <u>&lt;5조&gt; 발표: &lt;정읍&gt;</u> <u>/단체사진(정읍시비)</u> 30 이동(2분) 32 중식(38분)	40 이동(30분)
13시		10 이동(1시간 40분)	10 난고문학관(50분) (김삿갓 문학관 시비와 묘) <u>단체사진(김삿갓 묘역 앞)</u>
14시	30 홍성 한용운 생가(40분) <u>&lt;2조&gt; 발표: 한용운</u>		00 이동(1시간)
15시	10 이동(1시간 30분)	00 옥천 정지용 생가·문학관(30분) <u>&lt;6조&gt; 발표: 정지용</u> 30 이동(2시간 50분)	00 제천 관란정 유허비(50분) <u>&lt;8조&gt; 발표: 원호</u> 50 이동(2시간)
16시	40 신석정 고택 및 문학관(30분) <u>&lt;3조&gt; 발표: 신석정</u>	※ 휴게소(10분)	※ 치악 휴게소(30분) - 차량 내 쓰레기 정리
17시	10 이동(40분) 50 군산식당(석식; 1시간)		50 학교 도착
18시	30 이동(5분) 35 숙소 도착	00 장다리 식당 도착(석식; 40분) 40 이동(5분) 45 숙소 도착	00 평가회
19시	00 소감문 작성(조별)	00 소감문 작성(조별)	30 귀가
20시	30 토의(조별) ※소감문 제출	30 토의(조별) ※소감문 제출	
22시	00 개인 정비 및 취침	00 개인 정비 및 취침	
숙식	중식: 놀부보쌈과돌솔밥 (보쌈정식, 870kcal) 석식: 군산식당(한정식, 700kcal)	조식: 군산식당(백반, 400kcal) 중식: 정읍사한우관 (육회비빔밥, 600kcal) 석식: 장다리(마늘한정식, 800kcal)	조식: 대명리조트 푸드코트 (황태 해장국, 450kcal) 중식: 돌판애 (갈비탕+메밀전, 550kcal) 석식: 춘천 성심식당
	대명리조트 변산(스위트룸)	대명리조트 단양(스위트룸)	

## <답사여정>



### <답사 보고서>(일일 제출용 - 조원용)

※ 답사 참가자는 답사지마다 1매씩 작성하여 조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 조장은 조원들의 답사지를 모아 매일 21시까지 답사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조		학번		이름	
답사지:					
경로(구체적 장소)	시간(10분단위)	관찰 내용		특기 사항	
<b>【감상】 (문학 창작 기반과 관련하여)</b>					
<b>【발표 내용, 답사 일정 등에 관한 의견】</b>					

### <답사 보고서>(일일 제출용 - 조장용)

※ 답사 참가자는 답사지마다 1매씩 작성하여 조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 조장은 조원의 답사지를 모아 매일 21시까지 답사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 조장은 조장용 답사지의 보안을 유지하여 매일 21시까지 답사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조		이름	
금일 답사지 전체:			
조원 이름	발표수용태도	답사태도	전체적인 평
	양호, 보통, 미흡	양호, 보통, 미흡	
	양호, 보통, 미흡	양호, 보통, 미흡	
	양호, 보통, 미흡	양호, 보통, 미흡	
	양호, 보통, 미흡	양호, 보통, 미흡	
	양호, 보통, 미흡	양호, 보통, 미흡	
【금일 답사에 대한 느낌】(답사지, 인솔교수, 집행부, 음식, 숙소 등 건의 포함)			
【금일 최우수 조원 추천】			
피추천인 - 사유 -			

# 1조 - 맹사성

## 1. 생애

20131124 윤영식

1360년에 아버지 맹희도, 어머니 홍 양조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신창 맹 씨의 후손이며 첫 조상은 맹의라고 추측하고 있다. 자는 자명, 호는 고불, 동포를 사용하였으며 시호는 문정이다. 1386년 문과에 급제하여 춘추관 검열이 되고 전의시승, 기거랑, 사인, 우현남 등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외직으로 수원판관이 되었다가 다시 내직으로 내사사인이 되었다. 조선이 건국된 후에는 태조 때 예조의랑이 된 후, 정종 때는 간의우산기상시, 간의좌산기상시를 하였다. 태종 때에 좌사간의 대부, 동헌대언, 이조참의를 맡았다. 또한, 1407년 예문관제학가가 되었을 때, 세자가 명나라에 진표사로 가는 길에 시종관으로 수행하여 다녀왔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나라에 대한 충성심으로 많은 관료직을 맡아 정사를 돌보았고 전해진다. 다음으로 한성부윤과 세자우부빈객을 맡고 사헌부대사헌이 된 후로, 박안신과 함께 평양군 조대림을 왕에게 알리지 않고 데려다가 고문한 이유로 태종의 큰 노여움을 사 처형될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당시 영의정에 있던 성석린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이듬해에 판충주목사로 다시 기용되었다. 예조는 관습도감제조인 그를 음률이 뛰어났다고 평가했다. 그래서 선왕의 음악을 복구하기 위하여 당시 한양에 머물게 하여 바른 음악을 가르치도록 건의했다. 그 후, 건의가 수락되자 이듬해 풍해도도관찰사에 임명되었고, 영의정 하륜이 음악에 밝은 맹사성을 그곳에 머물게 하며 악공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그리고 1416년에 이조참판에 이어 예조판서가 되고, 생원시에 시관이 되어 권채 등 100인을 뽑았으며, 왕이 친림한 문과시험에 독권관이 되었다. 그해 병간호를 위해 사직을 원하였지만 윤휴되지 않았고, 역마와 악을 하사받았다. 이후 호조판서가 되어서도 고향의 노부를 위해 다시 사직을 원하였지만 왕은 그가 관료로 머물기를 원해서 충청도도관찰사로 삼아 노부를 봉양하게 하였다. 1418년에는 공조판서가 되었는데, 그는 다시 노부의 병간호를 위해 사직하려 했지만 윤휴되지 않았다. 1419년에 이조판서와 예문관대제학이 되었으며, 이듬해에 다시 이조판서가 되었다. 이후에도 맹사성은 의정부찬성사가 되고 1427년 우의정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가 우의정에 오르고 '태종실록의 편찬이 끝나자 세종이 보고자 하였다. 그런데 그는 왕에게 "왕이 실록을 보고 고치신다면 반드시 후세에 관료들이 이를 본받게 되어 사관이 두려워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고 반대했더니 세종이 그대로 따랐을 정도로 왕의 신임이 두터웠다. 1432년 마지막 관료로 좌의정에 오르고 3년 후 나이가 많아지자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나라에 중요한 정사가 있으면 왕은 반드시 그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그리고 1438년에 세상을 떠났다.

맹사성의 생애에 대해 조사하면서 가장 놀란 것은 맹사성이 79년의 생애 동안 모신 왕의 수가 무려 일곱 분이나 된다는 것이다. 그는 고려시대의 우왕 때부터 시작하여 조선시대의 세종 때 까지 관직을 하며 나라에 몸을 바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맹사성이 세종이 실록을 보려하자 이를 막으면서 한 대사가 인상 깊었다. 맹사성 같은 인물이 있어 보다 왜곡되지 않은 역사를 배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이진이 / 세종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맹사성의 시조 「강호사시가」에 내재된 충의사상과 춤 이미지 분석/2011/ p3~5

## 2. 맹사성의 성격

20141124 서채린

『연려실기술』<sup>1)</sup>에 서술된 맹사성은 사람됨이 소탈하고 조용하며 엄하지 않았다. 타고난 성품이 어질고 부드러워서 조정의 큰일이나 관(官)에 있어서 일을 처리하는 데에 과감하게 결단하는데 단점이 있었다. 그는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럽고 청백하여 그가 살고 거처하는 집은 비바람을 가리지 못했으며, 소타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재상인 줄 알지 못했다. 『세종실록』<sup>2)</sup> 졸기에 맹사성은 사람됨이 조용하고 간편하며 선비를 예절로 예우한 것은 천성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관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벼슬이 낮은 사람이 찾아와도 반드시 예의를 갖추었다. 대문 밖에 나아가 맞아들여 윗자리에 앉히고 돌아갈 때에도 역시 공손하게 배웅하여 손님이 말을 탄 뒤에야 문 안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또한 맹사성은 음악에 조예가 깊어 스스로 악기를 만들어 음악을 즐기기도 하였다. 한 마디로 맹사성의 성격은 온화하고 자비로웠으며 효자이고 청렴결백했다.

맹사성은 태종대 이후의 시대에 가장 적합한 인간형이었다. 그는 태종대 주요 인물 대부분과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면서도 어떠한 정치세력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공적인 업무 외에는 일체의 관료와 접촉하지 않았으며, 비리에도 가급적 관여하지 않았다. 당대의 관행상 맹사성처럼 정치 세력을 형성하지 않고 재산에 관심이 없는 인물은 드물었다. 맹사성이 굴곡진 역경을 거치면서도 세종 대에 정치적으로 급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일반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자기 절제와 결벽에 가까운 도덕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맹사성이 살았던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의 시대는 부정부패와 비리가 많았다는 것은 그가 역사에 평가된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위의 일화를 보면, 맹사성은 당대의 부패한 관리들보다 당대의 사회에서 청백리 사상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검소한 성격으로, 현대의 정치가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이 아닌가 싶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당시 재상이나 관리들이 맹사성처럼 청렴결백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역사는 조금 더 깨끗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직접 유적지를 갔을 때,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미리 발표를 하면서 놓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된다. 또한 요즘 현대사회의 빠르게 돌아가는 스마트 시대 속에서 세상은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점점 각박해져만 가는데,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맹사성의 모습을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참고문헌 : <이정주 외/아산 유학의 여러 모습/외암사상연구소/2010>

<박주/맹사성(孟思誠)의 생애와 세종대의 유교윤리(儒敎倫理) 보급/조선사연구회/2005>

<노병룡/청백리열전(6): 맹사성/대한지방행정공회/1985>

1)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공익이, 그의 아버지가 유배되었던 곳인 신지도(薪智島)에서 42세 때부터 시작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 30년에 걸쳐 편찬한 조선시대 야사(野史)의 총서이다. 기사본말체(記事本末體)로 서술되어 있다.

2) 『세종실록』(世宗實錄) (정족산본), 춘추관(春秋館) 찬, 을해자(乙亥字), 1454년, 163권 154책, 국보 제151호, 규장각 도서. 조선 제4대 국왕 세종의 재위 기간(1418.8~1450.2)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 3. 업적

20141133 정서우

맹사성(孟思誠)은 세종 때 4장으로 구성된 연시조 ‘강호사시가’를 지었다. 세종 13년에는 좌의정이 되어 정치 또는 행정의 일에 뛰어나 이름난 재상으로 불리었다. 그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었으며 곧고 깨끗한 선비로 많은 업적을 남겼다. 황희<sup>3)</sup>와 함께 조선 초기 문화를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시가와 산문에도 능하여 향악을 정리하기도 했다. 또한 『태종실록』 편찬을 감독했고 『팔도지리지』를 편찬하였다.

성리학자<sup>4)</sup>였던 맹사성은 세종이 가족을 잃고 불교에 의지하자 조선이 유교 국가임을 주장하며 이에 강력히 반대했다. 세종을 설득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현전 학사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불교귀의를 반대하였다.

맹사성의 업적은 ‘예악정비’, ‘여진정벌’, ‘온양온천’으로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먼저 ‘예악’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유교정치에 있어서 중심적으로 다루었던 예법과 음악을 말한다. 정치와 예가 무너지는 것을 지양하고 아름다운 정치를 지향하고자 했던 관리들의 모습이 반영된 것이다. 젊은 관리들이 전통음악을 버리고 중국음악을 향유하는 모습을 보며 두 음악을 조화시키고 융화하는 방안으로 음악을 재정비하였다.

두 번째 업적은 세종의 여진정벌을 기획한 것이다. 맹사성은 이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향하였다. 정벌시기, 군사규모, 최윤덕을 중심으로 한 정벌군 조직 등 7개 부대에 의한 동시다발적 기습작전까지 모두 맹사성의 의견을 따랐다. 세종이 여러 신하들의 반대를 이겨내고 여진족 정벌을 통해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맹사성의 역할이 지대했다.

마지막으로 ‘온양온천’은 세종이 앓은 질병으로 고통을 겪자 온양으로 내려와 온천욕으로 질병을 치료한 것에서 나온 말이다. 몸이 호전되면서 세종은 온천치료의 혜택이 백성들에게도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맹사성도 이에 찬성하여 시행되도록 했다. 맹사성은 조선 복지정책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데 기여했다.

맹사성의 업적 조사를 마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는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인물이라고 말이다. 한 번 잘못됐다고 생각한 것은 상대가 왕이든 하인이든 바로 고치기 위해 설득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자기 자신의 주장을 독심 있게 밀고 나가는 추진력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 같다. 또한 맹사성의 인간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높은 관직을 맡다보면 권력에 눈이 멀어 신분상 낮은 사람을 홀대하는 것은 여러 자료에서도 익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맹사성은 낮은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도덕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세종의 태종실록 열람을 반대하면서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법과 원칙을 지키던 그의 자세는 후세를 내다보는 진정한 핵심인재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같다.

참고문헌: 네이버 백과사전

3) (1363년 3월 8일~1452년 2월 28일): 맹사성 등과 함께 세종대왕 보필.

4) 중국 송나라 때의 유학의 한 계통으로, 성명(性命)과 이기(理氣)의 관계를 논한 유교철학.

#### 4. <맹사성 일화>

20141111 김예림

##### 1) 고승이 맹사성에게 전해준 가르침

맹사성은 젊은 나이에 군수에 오를 만큼 학식이 뛰어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만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스님을 찾아가서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삼아야 할 최고의 좌우명은 무엇이나고 물었다. 스님이 그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그 답이라고 대답하자 맹사성은 그것은 모두가 다 아는 이치 아니냐며 스님에게 따졌다. 이에 스님은 맹사성에게 차 한 잔 하자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맹사성의 찻잔에 물이 넘치도록 물을 따랐다. 이게 무슨 짓이냐는 맹사성에서 스님은 “차물이 넘쳐서 바닥을 적시는 것은 알고, 지식이 넘쳐 인품을 망치는 것은 어찌 모르오?”라며 그를 나무랐다. 그 말을 들은 맹사성은 창피한 마음에 방을 나가려다가 문틀에 머리를 부딪치고 말았다. 그러자 이를 본 스님은 맹사성에게 “고개를 숙이면 부딪치는 법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일을 겪은 후 맹사성은 진정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면 인격 또한 훌륭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변하였다.

##### 2) 공당문답

맹사성은 고향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던 중 소나기를 만나 비를 피하기 위해 어느 누각으로 갔다. 그때 그 누각에는 부잣집 선비로 추정되는 한 남자가 먼저 와서 쉬고 있었다. 선비는 허술한 옷을 입은 맹사성을 보자 그에게 장난을 칠 생각으로 공당문답을 했다.

“한양에는 무엇하러 가는 공?” / “과거시험 보려고 갑니 堂”

“내가 뽀아 줄 공” / “농담하지 맙시 堂”

그러고 나서 비가 그치자 선비와 맹사성은 헤어졌고, 이 둘은 과거시험장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선비를 본 맹사성은 선비에게 다가가 물었다.

“어떻게 되었는데 공?” 당시 선비는 그를 놀릴 목적으로 공당문답을 제안한 것이었기 때문에 맹사성이 좌의정이라는 것을 안 순간 몸에 힘이 풀렸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 堂” 선비가 가까스로 대답하자 맹사성은 웃으며 말하였다.

“길가의 거렁뱅이 견공(犬公)에게서라도 항상 배울 것이 없을까 생각하는 것이 공인(公人)의 길임을 명심하시게나.”

##### ●자료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

맹사성과 관련된 ‘일화’ 조사를 맡은 나는, 다른 문인들에 비해 그에 관한 자료가 적지는 않을까 걱정했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그와 관련된 일화가 많이 전해져 비교적 쉽게 조사를 할 수 있었다. 덕분에 그의 생애 전반에 걸친 일화들을 접하며 ‘맹사성’이라는 인물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일화에 나타난 맹사성의 말과 행동을 관찰해봄으로써 그의 성격이나 가치관 등도 파악할 수 있었다. 비록 아직 맹사성에 관해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 그와 관련된 조사를 하면서 그에 맹사성에 관해 관심이 더 많아졌고, 4월에 있을 문학탐방에 대한 기대감 또한 전보다 훨씬 커졌다.

참고문헌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cwh765?Redirect=Log&logNo=90154150092>)

네이버 백과사전

(<http://blog.naver.com/hskim611015?Redirect=Log&logNo=120006400358>)

## 5. 맹사성작품의 다양한 관점

20141135 정예찬

– **작품분석** : 최초의 연시조인 <강호사시가>는 맹사성의 말년에 쓰인 시조라고 알고 있지만 다른 논문에서는 창작시기를 소급할 가능성을 제기하였고 왕조교체기에 좌절과 모색의 겪게 되면서 쓴 시로 볼 수 있었다. 1수부터 4수까지 총의사상과 안빈낙도의 삶을 살아가는 맹사성과 정권교체기에 실의 속에서 쓴 시조를 비교하며 살펴보자

<p>-제1수-</p> <p>江湖(강호)에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탁료 계변에 錦鱗魚(금린어) 1 안취로다.          이 몸이 閒暇(한가)해움도 亦君恩(역군은)이샀다.</p> <p>-제2수-</p> <p>江湖(강호)에 여름이 드니 草當(초당)에 일이 업다.          有信(유신)한 江波(강파)난 보내나니 바람이로다.          이 몸이 서날해움도 亦君恩(역군은)이샀다.</p> <p>-제3수-</p> <p>江湖(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艇(소정)에 그를 시러 홀니 띄여 더져 두고.          이 몸이 消日(소일)해움도 亦君恩(역군은)이샀다.</p> <p>-제4수-</p> <p>江湖(강호)에 겨울이 드니 눈 기찍 자히 남다.          샷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오슬 삼아.          이 몸이 칩지 아니해움도 亦君恩(역군은)이샀다</p>	<p>&lt;봄&gt;강호에서의 흥겨움과 풍류를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한 여유로움은 임금님의 은혜에서 나왔다고 말한다.</p> <p>&lt;여름&gt;유신한 강파를 통해 의인법을 찾아볼 수 있고 한가한 초당(짚으로 엮어서 지붕을 만든 집)생활을 보여주고 임금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예찬하고 있다.</p> <p>&lt;가을&gt;은 물고기를 잡으며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소일을 하는 것은 임금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p> <p>&lt;겨울&gt;은 눈이 많이 왔지만 춥지 아니한 이유는 임금의 은혜라고 예찬하고 있다.</p>
---	---

### – 정권말년 과 정권교체기에 쓰인 시조일 때의 둘의 공통점

작품이 보여주는 공간 강호이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각 수마다 모아 놓았다. 이는 폐쇄적인 공간의 아름다움을 극대화 시키는 공간미의 극대화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달혀있는 공간을 통해 작품의 정서가 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임금의 총의사상을 포함하는 것을 공통점으로 들 수 있다. 맹사성이 정권말년과 정권교체기에 쓰인 시조일 때의 둘의 차이점(위의 표에 정권말년의 해석이 있어서 다른 각도에서만 씀)

- 1수: 바빠야 할 봄에도 일을 하지 못함에서 생겨나는 무력감을 보여준다.
- 2수: 여름에도 그는 강바람만 쏘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는 무료와 무기력에 점점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 3수: 물고기가 살찌는 계절인 가을날에는 강호에서 정치의 큰 꿈을 꾸고 기다리고 있는 어부의 모습으로 본다.
- 4수: 차디찬 겨울 냉혹한 현실 속에서 그는 춥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생활은 여의치 않기 때문에 무력함과 고통을 참아내는 것은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명준,<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의 창작 시기와 세계상>,2005

- 이지인, 맹사성의시조「강호사시가」에 내재된 총의사상과 춤 이미지 분석,2011

## 6. 맹사성과 관련된 유적지 맹사성고택과 맹사성에 대한 평가

20141105-곽동호



위의 사진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종리에 있는 맹사성 고택이다. 이 집은 고려 말의 무신 최영이 지은 집으로 최영의 손자사위인 맹희도로 부터 물려받아 맹사성이 살았던 집이다. 뜰에는 맹사성이 심은 600여 년의 은행나무 두 그루가 마주 서 있으며 이 은행나무는 맹씨 행단 이라고도 부른다. 이 고택과 구괴정, 은행나무를 포함하여 아산맹씨행단이라 불리며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 19호로 지정되었다. 이 고택 뒤에는 맹사성과 그의 부친, 조부 등 맹씨 3위의 위패가 모셔져있는 사당 세덕사와 정각이 함께 있으며 맹사성의 유물들을 모아 전시하고 있는 유물 전시관이 세워졌다. 이곳엔 중요민속자료 225인 고불맹사성 유물일괄이 보관되어 있다.

### <맹사성에 대한 평가>

맹사성은 세종대왕 시절의 좌의정이란 벼슬을 하셨던 인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청백리의 교본으로 알려져 있다. 성품은 후덕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음악 쪽에도 재능이 밝으셨던 걸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약간 괴짜의 성격도 있는 걸로 유명하다. 사람됨이 소탈하고 조용하여 벼슬이 낮은 사람이 찾아와도 공복을 갖추고 대문 밖에 나가 맞아들여 뒹자리에 앉히고, 돌아갈 때에도 공손하게 배웅하여 손님이 말을 탄 뒤에야 들어왔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로 그의 사람됨은 좋게 평판이 나 있다. 물론 맹사성에 대한 일화를 찾아보다보면 위인전에 나오는 것처럼 맹사성이 처음부터 완벽한 성인은 아니다. 그의 젊은 시절 그가 경기도 파주 군수로 부임하던 시절의 일화를 살펴보면 그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화를 내기도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고승에게 깨달음을 얻은 다음 맹사성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맹사성의 모습이 되었다. 이러한 모습으로 보아 나 역시 당대의 사람들과 현대의 사람들의 맹사성에 대한 평가와 같이 그를 진정한 청백리의 교본으로 본다.

### <맹사성에 대해 조사하면서 느낀 점>

맹사성에 대한 조사에서 많이 느낀 점은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고 그로부터 깨달음을 얻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면 그 사람이 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나 역시 계기가 마련되면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삶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참고문헌 : 두산백과 [맹사성 고택],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박영규 저, 들녘, 73P~76P

## 7. 맹사성에 대한 퀴즈

20121132 이은혜

### 맹사성의 성격

1. 맹사성은 본디 성격이 온화하고 청렴결백한 인물이었다. 그는 높은 관직에 올라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즐겨하던 놀이는 굉장히 소탈하였다. 이 놀이의 이름은 무엇일까?

### 맹사성의 일화

2. 맹사성은 젊은 시절 한 스님을 찾아가 자신의 자만함을 깨닫고 이후 겸손한 삶을 살아왔다. 이 때 스님은 맹사성에게 “○○이 넘쳐서 바닥을 적시는 것은 알고, ○○이 넘쳐 인품을 망치는 것은 어찌 모르오?” 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서 빈칸은 어떤 단어인가?

### 맹사성의 업적

3. 맹사성이 이루어낸 대표적인 업적 세 가지 중 하나만 말해보시오.

4. 맹사성은 원칙을 중시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세종대왕이 불교에 귀의하는 것을 반대하고 죽을 각오로 감히 왕에게 ‘이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고 주장하였다. 이 행동은 무엇일까?

### 맹사성의 평가

5.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맹사성의 고택 뒤편에 맹사성과 부친, 조부 등 맹씨 3위의 위패가 모셔져있는 사당의 이름은 무엇일까?

### 맹사성의 생애

6. 맹사성은 고려시대의 우왕 때부터 조선시대의 세종 때 까지 관직을 하면서 79년의 생애 동안 많은 수의 왕을 모셨다. 그렇다면 몇 명의 왕을 모셨을까?

### 맹사성의 작품 분석

7. 강호사시가 2수의 첫 번째 줄에 “江湖(강호)에 녀름이 드니 草堂(초당)에 일이 없다. “라는 구절이 나온다. 여기서 ‘초당’의 뜻은 무엇일까?

## 2조 - 한용운

### 1. 생애

20141112 김은비

한용운은 1879년 8월 29일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 491번지에서 한용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6세의 나이에 그는 향리의 사숙에서 한문을 배웠고, 9살이 되던 해 <서경기삼백주>를 통달하여 ‘옥공 신동’으로 소문이 나기도 했다. 1892년 향리에서 천안 전씨(全氏)와 결혼하였고, 한학에 정진했다. 1896년에는 향리의 숙사가 되어 동몽들을 가르치며 홍주의 올미의거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홍주의거가 실패로 돌아가자 고향을 떠나 출가해 강원도 인제군 설악산 백담사 등지를 전전했다. 1899년 세계여행을 계획하고 하산하여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갔으나 박해를 받고 곧 되돌아와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전전하였다. 1904년 시베리아, 만주를 주유하다가 봄에 고향인 홍성으로 내려가 수개월간 머물다 다시 설악산 백담사에 들어가 중이 되었다. 12월 12일에는 아들 보국이 태어났다. 1905년 1월 26일 백담사에서 김연곡 선사 밑에서 득도하였고, 서울에 경성 명진 측량강습소를 개설하였다.

1908년 4월 일본을 순례하며 신문물을 시찰하였고, 유학중이던 최린과 만났다. 12월10일 서울 경성명진측량강습소를 개설하였고 소장에 취임하고 사찰마다 강연을 다니며 측량학교를 세우도록 노력하였다. 1910년 9월 20일에는 경기도 장단군 화산강숙 강사에 취임했고, 승려취처 문제에 관한 서를 두 차례 당국에 제출하여 불교계에 물의를 일으켰다. 박한영, 진진웅, 김종래, 장금봉 등과 순천 송광사, 동래 범어사에서 승려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한일불교동맹 조약 체결을 분쇄하였다.

1911년 한용운은 망국의 울분을 참지 못해 8월 만주로 망명하여 만주 지방 독립군들에게 민족 독립 사상을 북돋아주었다. 1913년에 박한영, 장금봉 등과 불교 종무원을 창설하였고, 5월 19일 통도사 불교 강사에 취임하였다. <조선불교유신론>을 불교서관에서 발간하였고, 4월 불교강구회 총재에 취임하였다. 1914년에 <불교대전>을 범어사에서 발행하였고, 8월 조선불교회 회장에 취임하였다. 1918년 9월 월간지 <유심>을 창간하여 편집인 겸 발행인이 되었고, 중앙학림 강사에 취임하였다.

1919년에는 3·1운동의 주동자로서 최남선이 작성한 <독립선언서>의 자구를 수정하고 공약 3장을 첨가하였다. 또한 33인을 대표하여 독립 선언을 연설하였고, 거사 후 체포되었다. 투옥 중 3·1운동을 회개하는 참회서를 써내면 사면해주겠다는 회유를 단호히 거부하였다.

1922년 3월에 출옥한 그는 3월 24일 법보회를 발기하였다. 5월 조선불교청년회의 주최로 기독교청년회관에서 강연하였으며, 1923년 2월 조선물산장려운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1926년에 <십현담주해>는 법보회에서 시집 <님의 침묵>은 회동서관에서 발행하였다. 1927년 신간회를 발기, 신간회 중앙집행위원 겸 경성지회장에 선임하였고, 일제의 불교 탄압에 맞서 불교 대중화에 노력하였다. 1929년에는 광주학생의거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고 민중대회를 개최하였다. 1931년 6월 <불교>지를 인수하여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9월 나병구제연구회를 조직하여 전국에 간이수용소 설치를 결의하였다. 1932년에는 조선불교 대표인물 투표에서 최고득점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12월 전주 안심사에서 발견한 한글 경판

을 보각하고 인출하였다. 이 무렵 성북동 일대의 국유지를 주겠다는 식산은행의 제의를 거절하였다.

1933년 유숙원과 재혼하였고, 성북동에 총독부 건물을 마주보지 않으려고 북향집으로 심우장을 지었다. 그리고 1년 뒤, 딸 영숙이 태어났다. 1937년에 재정난으로 휴간된 <불교>지를 3월 1일 속간하였다. 1940년 창씨개명에 대하여 박광, 이동하 등과 반대운동을 펼쳤다. 그리고 1943년 조선인 학병의 출정을 반대하였다. 나라를 위해 평생을 노력해왔던 그는 1944년 6월 29일. 신경통으로 심우장에서 입적하였고, 유해는 미아리 화장장에서 다비식을 올리고 망우리 공동묘지에 안장하였다.

## 2. 작품 활동

20141108 김민호

한용운은 1913년 5월 25일 [조선불교유신론]을 불교서관에서 펴내었다. 1914년 4월 30일 [불교대전]을 편찬을 완료하고 범어사에서 출간했다. 1917년 4월 6일 [정선강의 채근담]을 편집해서 저술했고 신문관에서 출판했다. 1918년 9월 1일 [조선청년과 수양·전로를 택하여 進하라]와, 수필[고학생]과, 시[心]을 유심1호에 실었으며, 같은 해 10월 10일 [고통과 쾌락], [자아를 해탈하라]를 유심2호에 발표했다. 11월 4일에는 [조선독립의 서]가 독립신문에 게재되었다.

그러던 중 그는 3·1운동과 관련하여 체포되고 마는데, 3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나온 뒤 1922년 9월 1일 옥중 시 [무궁화 심고자]를 개벽 27호에 발표했다. 이어 1924년 10월 24일 단편소설인 [죽음]을 발표했다. 그리고 마침내 1926년 4월 20일, [심현담주해]와 함께 만해 한용운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시집 [님의 침묵]을 발행하였다. 1928년 6월 1일 [전문 지성을 갖추자]라는 논설문을 발표하였고, 1929년 6월 12일 [한(聞砧聲 외 8수)시]를 발표했다. 1930년 1월에는 [남모르는 나의 아들]이라는 수필을 발표하였고, 1931년 8월 수필 [비바람]을 발표했으며, 10월에는 [한갈등]이라는 시론을 발표했다. 그리고 12월에는 시 [귀향소곡]과, 수필인 겨울밤 나의 생활을 발표했다. 1932년 1월 수필 [평생 못 잊을 상처]를 발표했다. 1932년 9월 1일에는 [불교청년운동에 대하여] 논설문을 발표했다. 1932년 10월 1일 시 [월명야예]를 발표했다. 1933년 3월 26일 시 [달님 달님 달님]을 발표했다. 1933년 4월 1일 [구회창립에 대하여]라는 논설문을 발표했다. 1933년 9월 1일 한시 [명사십리]를 발표했다. 1935년 3월 8일~13일 동안 [북대륙의 하룻밤]이라는 회고담을 발표했다. 1935년 4월 9일에서 1936년 2월 1일까지 장편소설인 [흑풍]을 연재했고, 1936년 3월 27일에서 1936년 4월 5일까지 [심우장 산시1~7]을 연재했다. 1937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시론 [산장춘흥]을 연재했다. 1938년 장편소설인 [박명]을 조선일보에 연재했다. 1940년 2월 1일 논문 [분교의 과거와 미래]를 발표했다.

### 3. 대표작품 및 분석

20141141 류창석

#### - 알 수 없어요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물려가는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잎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  
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  
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詩)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  
는 약한 등불입니까

갈래는 자유시와 서정시이며 낭만적이고 관념적, 역설적인 시이다. 어조는 의문형, 여성적 어조이며, 특징은 상징법과 반복법,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가 사용되었다.

임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의 과정을 내용으로 한 시이다. 기본적으로 불교의 사상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자연의 신비를 통해 임을 부분적으로 엿보게 했다. 재가 기름이 된다는 표현은 현실에서는 굉장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지만, 기름이 재가 되고 재가 기름이 되는 영원함속에 임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임은 존재하지 않지만 실은 존재한다고 믿어 화자는 임의 영원함을 믿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 - 임의침묵

임은 갔습니다. 아아 나의 사랑하는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참을 돌려놓고 뒷걸음 쳐서 사하졌습니다.  
나의 향기로운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  
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에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님은 갔지만 나는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갈래는 자유시와 서정시이며 낭만적, 의지적, 상징적, 역설적인 시이다. 어조는 여성적 어조와 경어를 사용하였고 특징은 상징적 기법과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이 시에서 임은 불교에 관한 깨달음을 얻은 절대자, 조국, 이성 이렇게 세 가지 뜻을 담고있는데, 이 중 조국이 그가 말하고자하는 바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된다. 조국을 빼앗겼지만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시에서 나타내고 있고, '떠난 사람은 돌아오게 되어있다'는 말을 통해 절망이 희망으로 보일 수 있게 했다.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임은 영원히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 - 나룻배와 행인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낡아 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갈래는 자유시와 서정시이며 명상적, 상징적, 종교적이다. 이 시 역시 여성적 어조가 사용되었으며 경어체이다. 처음과 끝이 같은 수미상관으로 시를 마무리 한 작품이다. 나룻배와 행인에 비유하여, 나룻배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희생과 사랑을 보여준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님'이 지금은 없지만, 언제든지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취할 수 있는 태도임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한용운은 이 세 편의 시에 모두 여성적 어조와 경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를 통해 더욱 호소력 짙은 작품을 만들어냈으며, '님'과의 이별, 혹은 '님'의 부재를 사용하여 시를 만들었다. 이는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가 조국광복을 위해 갖춰야할 자세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4. 문학사적 의의

20131118 박 현

한용운은 일제 강점기 때의 독립운동가 겸 승려, 또 시인이었다. 그는 시인, 독립운동가로서는 저항문학에 앞장섰고, 승려로서는 불교를 통한 청년운동을 강화하는 데에 앞장섰다. 때문에 그가 독립운동가 겸 시인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존재가 문학사에서 가지는 의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흔히들 한용운을 승려라는 종교적 위치 때문에 신비주의 시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가 쓴 선시(禪詩)가 적은 수는 아니지만, 그의 작품 활동에 대해 더 밝혀내다보면 혁명의 마음을 더 많이 노래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시가 아닌 다른 면에서 이미 극치를 이루었기에 그런 시선이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우수한 시 작품을 역사에 많이 남겼다.

그는 불교적 사상을 기틀로 하여 식민지 현실 속에서, 특히 탄압이 심해 민족적인 정신이 많이 짓눌렸을 1920년대에 '민족의 독립에 대한 소망이 부활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런 독자적인 사상을 시로 형상화하여 새로운 민족적 희망을 제시했다는 것에 문학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임의 침묵>이 그런 시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고, <알 수 없어요>라는 시에도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라는 시구를 통해 그러한 사상이 제시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임의 침묵>을 통해 그의 문학적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자. 앞서 작품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임의 침묵>의 주체는 여성으로 나타나있으며 시적인 분위기 또한 여성적인 면모가 다분하다. 그러나 시의 내용을 해석해보면 잃어버린 조국과 민족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여성적인 표현 방법은 호소력을 위한 표면적 기법일 뿐, 그 안에는 저항 정신이 잠재되어있다는 것이다. 그 두 가지가 조화되어 한국문학의 총체적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의 시는 산문적인 형식을 지향한 자유시의 형태로서 현대시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 점에서 그의 시는 외래의 영향을 받아들이면서도 전통시의 맥락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시의 은유와 역설 역시 서구의 것보다도 전통시를 계승한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그의 시는 민족주체성을 시적으로 탁월하게 형상화한 민족시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한용운의 작품들이 문학사에서 가지는 의의는, 빼앗긴 조국과 민족이 부활할 수 있다는 혁명의 사상을 여성적인 정조와 민족적인 전통시의 방식을 통해 시로 형상화하여 새로운 민족적 희망을 제시했다.

## 5. 독립운동가로서의 의의

20141125 송수림

만해 한용운은 뛰어난 문학가임에 동시에 우리민족이 반봉건, 반외세라는 내외적 과제에 직면하여 있을 때 출생하여 일평생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한 인물이다. 그는 불교혁신운동과 사회계몽운동을 통해 반봉건을 부르짖었고, 3.1운동을 비롯한 민족운동을 주도하며 항일독립투쟁의 선봉에 섰다.

특히 3.1운동은 우리 독립 운동사에서 가장 대규모적이고 획기적인 운동이었는데, 한용운은 1919년 1월 말경의 초기 계획단계부터 민족대표 서명, 독립선언서의 배포, 민족대표들의 독립선언식의 주도 까지 3.1운동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으며 그의 활동 또한 매우 괄목할만하다. 당시 한용운이 작성한 독립선언문은 타인의 자유를 침략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제하고 있으며, 독립의 타당성 주장과 조선 총독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 그리고 조선 독립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당시 ‘유심’이라는 잡지를 발간하면서 한용운은 ‘조선 독립의 서’를 통해 조선 독립을 주장하는 근거를 현실적으로 제시하여 보편적 공감을 이끌어내게 되며 자유, 평등, 민족, 진보 사상을 기미 독립 운동의 사상적 기저로서 체계화하게 된다. 그는 조선 민족이 타파해야 할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대상은 곧 식민체제 자체로 보았으며, 그 수단이자 하위적 형태인 총독정치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인식했다. 그 자신의 철저한 비타협주의, 자주적 완전독립론의 노선을 천명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독립을 위한 열망과 지조는 문예활동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그가 1924년 탈고한 미발표 유작 “죽음”은 1930년대 우리사회의 한 단면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 안에서 소설의 첫머리를 8월 29일의 경술국치일로 설정, 민족의 현실을 외면한 채 곡필을 일삼던 경성신문사 편집실에 폭탄을 던지고 종로경찰서에 스스로 나타나는 인물의 모습을 통하여 항일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한 의도를 명백히 알 수 있으며, 항일적 내용이 직접적이고 강한 톤으로 그려졌고 복선이 많이 깔려져 있음은 3.1운동 직후 그의 강렬한 독립투지를 보여줌을 느낄 수 있다.

1935년 발표한 “흑풍”은 근대적인 혁신운동의 격렬하고도 엄숙한 상황을 묘사한 소설인데, 실제로 3.1운동 같은 우리의 독립운동을 이미지로 하여 항일투쟁의 모습을 그리려 했다. 그는 끊임없이 일제에 대한 투쟁정신을 고취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그는 조국과 민족의 광복을 외면하고 식민지적 체제 속에 편입되어 그 소시민으로 전락한 문인들로 구성된 어떤 문학동인 그룹이나 문예지에도 가담하지 않으며 자신의 절개를 깨끗이 지켜나갔다.

이처럼 한용운은 끝까지 일제와의 타협을 거절하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발 벗고 나서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그의 독립에 대한 갈망, 매서운 지조는 민족 지성인의 표본이 되었으며, 그의 일생은 곧 우리의 민족적 정기와 양심의 발현이 되었다.

## 6. 불교인으로서의 의의 - 만해의 길

20131133 이지원

한용운. 그는 뛰어난 시인이자 독립 운동가이자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불교인이었다. 앞에서 문학가, 독립운동가로서의 한용운의 의의를 살펴보았다면, 이번엔 불교인으로서 만해의 의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조선왕조 말 국운이 기울어가던 1879년에 태어난 한용운은 당시의 급박한 시대상황 속에서 삶의 전환기를 마주하게 된다. 갑오동학농민혁명(1894)과 청일전쟁의 격동기에서 그는 역사의 현실을 직면하였고, 나아가 이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야 하는 인생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라가 망한다는 소문이 흘러나오는 중심지인 한양으로 향하였지만,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궁리 끝에 발걸음을 돌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월정사 도사에게로 향한다. 그러나 도사는 만나지 못하고 실망을 안은 채 발길을 돌려 백담사로 찾아갔다. 백담사는 만해의 불교정신이 태어난 곳으로, 이를 기점으로 한용운은 본격적으로 승려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주지 연곡 스님은 유천을 맞아 불문에 귀의시켰는데, 1905년 득도 때의 계명은 봉완(奉玩), 법명이 용운(龍雲), 법호는 만해(萬海)였다.

만해는 1910년 백담사에서 자신의 첫 번째 저술이면서 불교사에 길이 남을 명저를 만들어냈다. 이는 인간정신의 각성을 통한 불교 개혁의 지침서로, 만해의 사상을 담아내고 있으며, 한용운이 이룩해낸 위대한 업적이었다. 이것이 바로 《조선불교유신론》이다.

뒤이어 나온 1914년 《불교대전》은 이와 쌍벽을 이루는 지식인들의 필독서였다. 그는 일반 대중이 읽을 수 없는 경전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여 밝은 사회를 이룩하자라는 일념 하에 1511부 6802권의 막대한 분량의 팔만대장경을 독파하였다. 이를 통해 만해의 불교대중화에 대한 열의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큰일을 끝낸 만해는 전국의 젊은 승려들을 중심으로 ‘조선불교청년회’를 조직, 회장에 취임했다. 이 조직은 불교 대중화 운동을 전개하고, 친일세력인 전국 31대 본산 주지들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일제 저항운동 단체였다. 1918년에는 9월 불교월간지 <유심>을 창간하여 편집인 겸 발행인이 되었고, 중앙학림 강사에 취임하였다. 또한 1933년 《불교》지 84·5합호부터 인수하여 많은 불교 관련 논설을 발표하였는데, 이 잡지의 권두언들은 만해 정신의 원천의 모습이 샘솟아 나고 있는 장이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만해 한용운은 불교계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다. 《조선불교유신론》을 저술함으로써, 조선 불교가 처한 상황을 비판하고, 승려의 교육, 사원의 위치, 불가의 각종 의식, 주지의 선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개혁안을 제시했다. 또한 《불교대전》을 통해 어려운 경전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렇듯 그는 불교계에 큰 획을 그었다. 그러나 만해는 불심을 닦는 것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교사상을 토대로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이겨내고자 하였다. 그는 불교 대중화와 민족의식을 함께 깨우쳐 민족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그의 모습에서 그는 자신의 득도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진정한 불교인으로서 민족 그리고 조국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 7. 유적지 - 한용운의 흔적

20141134 정예인

충남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 491번지에 있는 한용운의 생가는 1992년 홍성군민의 노력으로 복원하였다. 한용운은 유년시절을 이곳에서 보냈다.

한용운은 1904년 강원도 안제군 북면 용대리에 있는 백담사 사찰로 출가하였다. 이곳은 설악산의 중심 사찰로 뛰어난 정경을 갖추고 있다. 한용운은 백담사에서 득도·수계하였고, 1910년 이곳에서 《조선불교유신론》·《님의 침묵》을 탈고하여 불교정신을 닦았다. 《조선불교유신론》은 1910년 백담사에서 탈고하고 서울 불교서관에서 1913년 5월 발행되었다. 이 책은 인간정신의 각성을 통한 불교개혁의 지침서로 여겨진다. 나룻배와 행인이 적혀 있는 한용운의 시비는 1992년 3월 1일에 강원도 안제군 북면 용대리 백담사 경내에서 제막하였다.



▲강원도 안제군 북면 용대리 백담사 ▲강원도 안제군 북면 용대리 백담사내 시비

1919년 2월 28일 경성부 계동 43번지 유심사에서 한용운은 경성부내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기 위해 중앙학림 생도 오택원 외 수명에게 선약서 약 3000매를 교부하여 반포하였다. 이로 인해 1920년 10월 30일 한용운은 정동 특별법정에서 징역 3년을 판결을 받게 된다.

1933년 신축하여 입적할 때까지 말년을 보냈던 성북동 심우장은 한용운의 민족의 자존을 지킨 집이다. 한용운이 총독부 청사가 보기 싫어 북향으로 돌아앉았기 때문이다. 1994년 6월 29일 66세의 나이로 한용운은 신경통으로 심우장에서 입적했다. 유해는 미아리 화장장에서 다비식을 올리고 망우리 공동묘지에 안장하였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심우장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망우리 공동묘지  
한용운 추모 시비

◆참고문헌◆

- 고은, 한용운평전(향연,2004), p.384~391  
고은, 한용운 평전, (향연, 2004), p.386~391  
고은, 한용운 평전(향연, 2004) / 임중빈, 임의 침묵(삼중당, 1982)  
고은 『한용운 평전』 (향연,2004) P.391  
고재석 『한용운과 그의 시대』 (역락,2010) P.1  
박결순, 한용운의 생애와 독립투쟁(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1992), p. 13~15, p. 67, p. 99, p. 148, p. 154~155  
신현수, 선생님과 함께 읽는 한용운(실천문학사,2004), p.251~253  
전보삼 『푸른 산빛을 깨치고』 (민족사,1994) P.1~8  
조정래, 한용운(문학동네, 2007), p. 100~120  
조정래, 한용운(문학동네,2007) 부록(연보)  
최동호 저, 한용운, 혁명적 의지와 시적 사랑(건국대학교 출판부, 1996), p.120~123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청서출판, 2007) 언어영역 한용운의 독립선언문  
한용운, 『알 수 없어요』 (design VITA, 2013), p.9 p.12 p.18 p.190~194

## 3조 - 신석정

### 1.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

20141114 김지수

여러 책이나 문헌들을 조사해 알아본 신석정과 그의 작품들은, 다른 시인들의 것과는 분명히 다르고 개성적인 문학사적 의의를 가진 것 같다. 자연을 사랑하고 먼 이상향을 동경하는 그의 가치관은 그의 작품에 두루 그려져 있다. 예를 들어 그의 대표작 <들길에 서서>에서는 산, 하늘, 별 등 자연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따뜻하고 소박한 느낌을 가지게 한다. 신석정만의 가치관, 표현방식, 또 그가 독자에게 주는 따뜻한 감정 등이, 그가 우리나라 시문학계의 대표적인 서정시인, 목가 시인으로써 그 존재감을 뚜렷이 하는 데에 큰 이유가 된 것 같다. 그의 작품이 다른 시인들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또 어떤 뚜렷한 개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그의 작품이 근대 시문학사에서 가지는 의의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먼저 처음으로, ‘목가’에 대해서 살펴도록 하자. 목가 시인으로써 가지는 신석정만의 평화롭고 소박한 감성은 그의 여러 작품에서 엿볼 수 있다. 그는 작품에서 ‘산’을 자주 노래했다. <내 가슴 속에는>라는 작품에는 『“산같이! 산같이”하던 ‘내’가 있다./ 오늘도 산같이 늙어가는 ‘내’가 있다』라는 표현이 있다. ‘산’을 동경하던 ‘내’가 결국 ‘산’과 같이 늙어간다는 표현에서 자연을 사랑하고 또 자연을 닮아가고자 한 그의 의지가 느껴진다. 또 자연과 인간을 구별된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은 신석정의 시선을 느낄 수 있다. <슬픈 구도>에서 등장한 『나와/ 하늘과/ 하늘 아래 푸른 산뿐이로다』와 같은 표현처럼, 그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추구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나’라는 존재와 하늘, 그리고 산뿐이라는 그의 표현을 보면, 믿을 것이 없고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 자연만이 그의 버팀목이며 동반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작품 곳곳에서 자연이 사람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임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신석정은 자연을 사랑하는 목가시인으로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다음으로는 그의 어조에서 찾을 수 있다. 신석정의 시는 화자가 마치 부드러운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는 겸손하고 친숙한 느낌을 주는 존댓말과 물음형으로 끝나는 문장을 즐겨 사용했다. <그 꿈을 깨우면 어떻게 할까요> 중에서 『어머니/ 산새는 저 숲에서 살지요?』, 『작은 산새의 한없이 깊은/ 그 꿈을 깨우면 어떻게 할까요?』와 같은 표현에서 그의 부드러운 어조를 느낄 수 있다. 이로 인해 시는 한층 더 따뜻한 느낌을 가지게 된다. 그의 작품이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는 또 다른 이유는 <푸른 침실>, <나의 꿈을 엿보시겠습니까> 등의 시에서와 같이 화자와 청자의 대화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른 시인의 작품에서도 화자와 청자 간의 대화는 종종 등장하지만, 신석정의 시는 대화주체의 다양성에서 그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 그의 시에 등장하는 대화주체는 어머니, 임, 소년 등 사람일 뿐만 아니라 계절과 나무 등 자연물에게까지 폭넓다. 신석정은 부드러운 어조와 자연-사람간의 대화를 통해 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석정은 끊임없이 이상향을 추구했다. 그는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에서

평화롭고 고즈넉한 자연이 있는 나라에 살기를 동경했고 <작은 짐승>에서는 ‘바다’로 표현된 이상향을 바라보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다. 그가 계속해서 이상향을 추구하고 바랐다는 것은 그만큼 신석정이 살았던 시대가 절망적이었고 모순과 핍박이 많았다는 것을 역설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그는 일제 치하에 있던 1930년대에 작품 활동을 하였고, 다양한 작품 속에서 그가 희망한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 이상향 등을 드러내었다. 그는 현실과 이상향을 구별하며 부드럽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이상향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의 대표작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는 그가 바란 이상향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시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 신석정 / 창작과 비평사

신석정 문학 연구 / 오택근 / 국학자료원

자연과 생활을 노래한 목가 시인 신석정 / 윤여탁 / 건국대학교 출판부

## 2. 시대상에 따른 신석정의 작품세계 변화

20141138 한가희

신석정은 1931년 <선물>을 발표하여 비평의 대상이 되면서부터 ‘목가 시인’으로 규정되었다. 그만큼 그의 시에는 자연 요소가 많이 드러나 있다는 이야기이다. 순수 서정시인으로서 평가되기도 하는 그이지만 그에겐 ‘목가 시인’과 ‘순수 서정시인’이란 명칭만으론 정의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그것은 기존의 목가 시와 순수서정시와는 다르게 참여성과 역사의식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노장사상과 자연주의 철학에 영향을 받았다고 스스로 말하고 도연명을 동경하며 자연요소가 짙은 시 세계를 표현하던 그가 왜 작품을 거듭할수록 역사의식을 반영하게 된 것일까?

1931년 발표한 그의 초기작에서는 역사의식 같은 건 찾아보기 힘들다.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시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랬던 그의 시가 1939년 첫 시집 「촛불」에서부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다.

1939년은 일제강점기로, 일본이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중·일전쟁에서의 인력 충당을 위해 우리나라의 청장년들을 강제로 징용해갔다. 일본의 억압이 심해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점점 더 황폐해져 가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현실에 지친 신석정은 「촛불」에 수록된 <촛불 밤>과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에서 그리움의 정서와 ‘먼 세계, 먼 호수’, ‘먼 나라’란 시어를 표현하며 이상향을 갈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시대상황에서 보면 ‘해방된 조국’으로 해석될 수 있는 시어들로, 신석정이 조국 광복에 대한 바람과 민족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1947년, 1956년 신석정은 시집 「슬픈 목가」와 「빙하」를 발표한다. 이 두 시기는 해방과 6.25전쟁이 지난 지 채 5년도 되지 않은 시기로, 매우 혼란스러운 때였다. 광복 후에는 사회적 혼란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대립이 나타났고 1956년은 6.25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회 전반이 어지러웠다. 먼저, 1947년 「슬픈 목가」에 수록된 <슬픈 구도>에서 작가는 ‘지구도 없다.’란 시어의 반복을 통해 일제강점기로 피폐해진 사회도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 또 다시 혼란으로 빠져드는 사회모습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한다. 나아가 ‘노루 새끼 한 마리조차 뛰어다닐 수 없는’ 현실에 일침을 가한다. 일제의 억압 아래서 조국해방에 대한 바람을 소극적으로 표현하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다.

1956년, 「빙하」에 수록된 <나무 등걸에 앉아서>에서는 ‘오늘사 태양 따라 환히 트인 길이 있어’ 등의 문장을 통해 전후 현실의 모습과는 반대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이것은 전후 피폐해진 마음에 희망을 주고 ‘……사랑보다도 뜨겁고 더 존엄한 꽃이 가슴 깊이 피어난 까닭이리라.’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 ‘생명’ 그 자체가 소중하다는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이다. 작가는 이제 역사의식에서 그치지 않고 ‘생명’ 그 자체의 소중함에 대해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신석정은 시집 「산의 서곡」과 「대바람 소리」를 발표한다. 1960년대 역시 4.19혁명, 5.16 군사정변 등 시대적으로 어지러운 시기였다. 1967년 발표한 「산의 서곡」에 수록된 <전아사>는 ‘얼룩진 역사에 만가를 보내고’ ‘참한 노래와 새벽을 잉태한 함성으로 다시 억만 별을 불러’ ‘사탄의 가슴에 창을 겨누리라.’라는 부분을 통해 부조리한 정권을 비판하고 그에 대항해야함을 나타낸다. 부조리함에 창을 겨눠야 한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신석정은 격동의 시대를 살아왔다. 격변했던 그의 삶만큼 그의 시도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 자연주의로 시작한 그의 시 세계가 민족과 역사, 생명, 참여 등 대한 의식을 가졌고 이는 신석정만의 독특한 시 세계로 남게 되었다.

\*참고서적: 「辛亥丁의 文學과 人生(1)」, 「신석정 문학 연구\_오택근」

\*참고논문: 「신석정의 난초관과 작품세계-난초 기질을 중심으로-」문경수, 「신석정 연구=(A)Study on sin seok-jeong\_문승호(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학위논문)」

### 3. 신석정 작품세계와 주변인물의 관계

20141101 강윤아

신석정의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라는 시가 있다. 이 시의 내용에서 ‘산비탈 넘지시 타고 내려오면 양지밭에 흰 염소 한가히 풀뜯고.....’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는 그가 살던 곳의 자연을 쓰기도 했다. 이렇게 자연의 모습이 그의 시세계에 보인다. 그는 보통학교를 졸업 후 바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때 조력자 이익상 선생을 만났고,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익상의 지도나 격려로 조선일보에 신석정의 첫 작품 <기우는 해>가 발표되었다. 신석정이 18세가 되던 3월 어느날, 남궁현이라는 사람이 찾아온다. 그는 신석정이 문학에 관심이 있는 것을 눈치채고 문학 이야기와 참고 서적을 제공해주었다. 이 두 사람의 도움을 통해 문학수업이라는 측면에서 상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다.

신석정은 1924년 4월 19일 <기우는 해>를 <<조선일보>>에 발표한다. 이 시는 남궁현과 계화도에 놀러갔다가 황해 바다 위해 해가 지는 정경을 읊은 작품이다. ‘해는 기울고요... 부딪치는 푸른 물스도 잔잔합니다...’ 이렇게 수평선을 넘어 가는 해를 처음 보고 감격하여 바로 시를 썼다.

<님의 침묵>에서는 한용운 문체를 수용했다. 그가 만해 스님을 찾아다니던 무렵에는 노장 사상, 타골, 도연명의 <도화원기> 등에서 경어체 영향을 받았다고 나와 있다. 그의 작품 중에는 도연명의 사상을 좋아했는데, 자연을 좋아하여 <효빈가>라는 제목을 지은 시가 있다. 내용 또한 ‘귀거래 귀거래 말뿐이오 갈리 없으니 전원이 장무하니 아니가고 어쩔꼬 초당에 청풍명월이 드나들이 기다리나니’ 자연을 예찬하는 내용이다.

1924년 5월, 신석정은 두 살 아래인 박성여와 결혼을 하여 슬하에 4남 4녀를 두었다. 그는 가정적인 시인이었는데, <기일국헌님께> 라는 시의 내용을 보면 ‘아침에도 손을 꼬옥 잡고 소줄 마시자니 아예 도연명같이 살고픈 까닭이신가요.’ 라는 연이 있다. 이 내용으로 보아 그가 가정적인 시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 3집 시집에는 제목 아래에 각 시마다 기일에서 기육까지 소제목이 붙어 있다. 특히 가람 이병기 선생은 신석정의 사위를 중매해줌과 동시에 문학스승이었다. 전북대에서 일을 하다 만난 김준영 교수 역시 문학스승으로 모셨고 이 둘과 친교하는 내용을 글에 담았다. 이 외에도 <기이>에서는 내소사 이명우 스님의 법명인 ‘소공’을 사용하기도하고, <기삼>에서는 신석정의 한의원을 경영하시는 장형의 아호인 ‘호민’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던 그는 6.25 이후 집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워져 석우 삼촌 집으로 나가 머물게 되는데, 이 곳 역시 가족애가 넘친다. 석정의 부인은 결혼 뒤 ‘소정’이란 이름으로 개명하였는데, ‘기사 소정님께’라는 시의 내용에서 ‘그러나 소정! 우리는 저 봄과 만날 수 없는 또 하나의 평행선을 그으며 늙어 가겠습니다 그려.....’ 이 부분을 보면 부부애가 충만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딸들에 대한 애정을 그린 시도 여럿 찾을 수 있다. 특히 4녀인 엽의 애칭이 <에레나> 인데 ‘그 새빨간 동백꽃을 두고 <에레나> 너를 두고 내 여기 있다.’ 라는 구절이 있다. 역시 이부분 에서도 딸에 대한 애정이 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1930년 3월 초에 석정은 서울에서 객지 생활을 할 때가 있었다. 그 때 그는 조선일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선일보가 3차 정간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다. 조선일보기자는 문장공부를 잘하여 춘원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을 반박하는 글도 쓴 당대의 문장가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신석정에게 넓은 세계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4. 대표작품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20131109 김연수

신석정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깊은 삼림 지대를 끼고 돌면  
고요한 호수에 흰 물새 날고  
접은 들길에 야장미 열매 붉어  
멀리 노루 새끼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그 나라에 가실 때에는 부디 잊지 마세요  
나와 같이 그 나라에 가서 비둘기를 키웁시다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산비탈 언저리 타고 내려오면  
양지밭에 흰 염소 한가히 풀 뜯고  
길 솟는 옥수수 밭에 해는 저물어 저물어  
먼 바다 물소리 구슬피 들려오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어머니 부디 잊지 마세요  
그 때 우리는 어린 양을 몰고 돌아옵니다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오월 하늘에 비둘기 멀리 날고  
오늘처럼 출출히 비가 내리면  
평소로도 유난히 한가롭게 들리리다  
서리가마귀 높이 날아 산국화 더욱 곱고  
노란 은행잎이 한들한들 푸른 하늘에 날리는  
가을이면 어머니! 그 나라에서

양지밭 과수원에 꿀벌이 잉잉거릴 때  
나와 함께 고 새빨간 능금을 또옥뚝 따지 않으  
렵니까?

신석정의 첫 시집 『촛불』에 수록된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는 신석정의 시적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작품이다. 1930년대 모더니즘 경향의 시들이 쏟아져 나오던 때 신석정은 전원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주제의 시들을 창조해냈다. 이 작품 또한 도연명의 『도화원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으로써, 자연친화적 삶과 유토피아를 꿈꾸는 내용을 담았다.

목가시인으로 유명한 신석정은 이 시에서도 전원적인 모습과 색채활용의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염소’와 ‘물새’ 앞에 ‘흰’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함으로써 순결, 사랑, 이상 추구의 심리를 드러냈다. 또 ‘가마귀’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꿩’, ‘비둘기’와 함께 가족애를 나타내며 만물의 평등과 조화를 상징한다.

또 이 시에서는 ‘먼 나라’라는 이상향이 등장하는데 이는 비현실적 공간으로서 동경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시대적 상황과 연관지어 볼 때 ‘먼 나라’는 일제 치하의 불안한 현실의 대치물로 표상된다. 따라서 ‘먼 나라’는 노루 새끼 한 마디로 마음 놓고 뛰어다닐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반어적 표현으로 좌절이나 상실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국효문, 신석정 연구, 국학자료원, 1998  
황송문, 신석정 시의 색채 이미지 연구, 국학자료원, 2008  
송하선, 시적 담론과 평설, 국학자료원, 2003  
강희안, 석정 시의 시간과 공간, 국학자료원, 2004

## 5. 역사와 함께하는 자연관을 가진 신석정

- '신석정' 평가 및 비평 -

20141126 안혜린

나는 신석정 시인의 작품들 중 「꽃뎀풀」을 가장 먼저 접했다. 틀에 박힌 고등학교 참고서 속의 「꽃뎀풀」은 무언가 위태로웠다. 책상에 앉아 중요한 시어를 밑줄 그으며 공부하기에는 시 속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가 너무나 급박하고 절망스러워보였다. 하지만 이번 기회로 신석정의 시에 대해 조사하면서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낭만을 느낄 수 있었다.

신석정 시는 현실 참여적이다. 신석정 시인은 70여년의 인생동안 일제강점기와 유신체제를 겪었고, 그의 경험들을 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는 평소 저항시 등 글로만 저항하는 시인이나 작가를 이해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신석정 시인의 인생관을 보며 시를 통해 힘든 시대를 이겨내려는 작가들을 공감할 수 있었다. 이런 신석정 시인의 인생관은 “시인으로서의 궁극적인 사명을 ‘여러 사람’과 함께 뜨겁게 살려는 인간애에 대해 근거를 두는 것”인데 시를 통해 스스로의 철학을 지켜냈다. 그는 시를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꽃뎀풀」)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신석정의 시를 보면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감독 중 한명인 ‘이창동’ 영화감독을 떠올렸다. 신석정 시 중, 「極樂(극락)과 地獄(지옥)사이」에서 “極樂과 地獄의 이웃에서/ 우리 살아야 한다.”라는 시구가 있다. 이 외에도 그의 시에서 인간의 노력과 끈기를 강조하는 시어를 자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내 노래하고 싶은 것은-(신석정 유고 시집)」에선 <우리의 의지나 경험방식에 따라 지옥이 극락이 되고, 극락이 다시 지옥으로 역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설했다. 이런 면에서 영화 ‘시’, ‘밀양’ 등 극단의 상황에 놓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인간의 심리를 묘사하는 이창동 감독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영화 ‘박하사탕’에 대한 인터뷰 중에 ‘사회적 요인으로 사람이 바뀔 순 있지만 결국 사람이 변하는 건 개인의 몫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 부분은 신석정 시인의 여러 사람과 함께 뜨겁게 살며, 그들에게 주체적 자아를 요구하던 그의 인생관과 일맥상통한다. 이처럼 신석정 시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했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 신석정에 대해 목가시인, 전원시인이라고 배웠다. 분명 「나의 노래는」나 「나랑 함께」와 같이 전원적이고 낭만적인 시도 많지만, 이 와중에도 ‘소쩍새 우는 어두운 밤’, ‘흐드러진 웃음’등 그의 철학은 항상 시와 함께했다. 이처럼 신석정 시인의 자연은 피난처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역사와 함께하는 자연이다.

## 6. 신석정 한눈에 보기

20121141 홍정인, 20121130 이다영

1974년 7월 6일 0시 20분에 영면

기우는해」(필명 소적) 게재, 이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에 다수의 작품 발표

「동광」지에 『촛불』의 모두 시 「임께서 부르시  
면」 발표. 10월 『시문학』 제 3호에 「선물」 발표.

『촛불』을 통해 종래의 시를 일변시킨 전원의 서  
정적 목가시인으로 찬사 받음. (시적 자아 = 순수  
한 동심의 소년)

「차라리 한그루 푸른 대로」 → 『문장』에서 검  
열 삭제 : 일제가 민족말살정책을 쓰던 40년에 우  
리말로 작품을 썼기 때문

일제시대 때 완성되었으나 검열을 통과하지 못해  
광복 후 간행. (자아 = 절대고독에 빠진 인간)

목가시인으로 불리던 초기의 모습은 거의 사라지  
고 6·25라는 민족시련 앞에 새로운 자신을 만들

5.16 직후 당시 교원노조를 지지하는 시를 발표  
하였다는 이유로 연행

일본에서 발행되어 당국이 국내 반입을 규제한  
『한양』에 「슬픈여정」 발표 후 20편 게재  
2월 남 파병을 제재로 한 시 「꿈의 일부」 발표.  
회갑기념 제 4시집 『산의 서곡』 간행

한국시인 협회 (회장 박목월) 초청으로 덕수궁 국  
립공보관 회랑에서 개인 시화전 개최

7월4일 수필 「병상의 이 여름을」 생애 마지막  
으로 집필

1907년 8월 15일 전북 부안군 출생

1923년 일인 교사 반대 동맹휴학 선동  
(17세) 두 살 연하와 혼인

1924년 『조선일보』에 첫 작품게재

1931년 시문학 동인으로 활동,  
(25세) 부안으로 낙향하여 시작詩作에 전념

1939년 인문사에서 첫 시집 『촛불』 간행

1947년 부안 낭주 문화사에서  
(41세) 제2시집 『슬픈 목가』 간행

1952년 『태백신문』 편집고문으로 위촉되어  
(46세) 「토요시단」을 주재

1954년 『삼남일보』 편집고문 피촉

1956년 제 3시집 『빙하』 간행

1958년 전라북도 문화상 수상

1961년 당국에 연행, 수일만에 석방

1965년(59세) 6월 전주시 문화장 수장

1967년 제 6대 한국예총전북지부장 역임

1968년 한국문학상 수상

1969년 남산의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혹독한 취조 받고 석방

1970년 한국 시인협회에서 제5 시집  
(64세) 『대바람소리』 간행

1971년 외솔회 전북지 회장에 추대

1973년 제 5회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수상

참고문헌: 신석정전집간행위원회. 『신석정 전집 1』. 국학자료원, 2009.

이효석. 『분화와 심화 어둠속의 풍경들』. 민음사, 2007.

김민성. 『辛夕汀의 文學과 人生(1)』. 고글, 1997

## 7. 신석정의 유적지

20141109 김상연

### 1. 신석정 고택 (청구원 -아래는 복원 후 모습)



1932년, 신석정이 26세 때 건립한 집이다. 은행나무, 자귀대나무 등을 심었고 측백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어 청구원(靑丘園)이라 칭했다. 이러한 청구원의 모습은 신석정의 첫 시집 <촛불>에 그려져 있다. <촛불>의 시에 나오는 은행나무와 대숲, 푸른 하늘 등은 모두 청구원에서 그린 그의 꿈과 낭만이였다.

‘거기서 나는 나의 첫 시집 <촛불>을 엮었고 <촛불>에 담긴 그 꿈같은 노래도 청구원 주변의 산과 구릉과 멀리 서해의 간지러운 해풍이 불을 문지르고 지나갈 때 얻은 꿈조각들인 것을 회상하면 불현듯 나의 상념은 초라한 고향 부안으로 줄달음 치는 것이다.’

위는 그의 유고 수필인 「난초앞에 어둠이 내리면」 중 일부분이다. 이는 목가적이고 자연과 고향을 사랑한 그의 자연관이 나타난다. 이러한 그의 자연관은 그가 청구원에서 지어 발간한 시집 <촛불>과 <슬픈 목가>의 대부분의 시를 보면 알 수 있다.

가을날 노랗게 물들인 은행 앞이  
바람에 흔들려 휘날리 듯이  
그렇게 가오리다  
임께서 부르시오면...

파란 하늘에 백로가 노래하고  
이른 봄 잔디밭에 스며드는 햇볕처럼  
그렇게 가오리다  
임께서 부르시면...

위 시는 <촛불>에 수록된 ‘임께서 부르시면’의 일부분이다. 노란 은행잎이 휘날리거나 파란 하늘에 백로가 노래하거나, 잔디밭에 스며드는 햇볕 등, 그의 시에는 그의 자연관과 청구원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 2. 신석정 문학관



전라북도 부안군에 위치한 석정 문학관이다. 신석정의 약력과 좌우명, 지인관계 등의 정보가 있고, 사진, 파이프, 육필원고, 그리고 시집 등 다양한 물품들이 보관되어 있다. 석정 문학관 사이트에는 그의 시세계, 수필, 작품연보 등 다양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다.

\* 참고 문헌 - 윤여탁, 「자연과 생활을 노래한 목가 시인 ‘신석정」,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0

국효문, 「신석정 연구」, 국학자료원, 1998

\* 사진 출처 - 네이버 블로그, 전라도여행/여행기, [전북 부안] 신석정 고택과 夕汀문학관  
<http://blog.naver.com/jcjkks/70170873416>  
석정 문학관. <http://shinseokjeong.com>

## 4조 - 정극인

### 1. 생애

20141113 김주민

정극인은 조선 전기 때의 학자이며 광주 출신이다. 본관은 영성(靈成). 자는 가택(可宅), 호는 불우헌(不優軒) · 다헌(茶軒) 또는 다각(茶角)이다. 또한 그는 진사 곤(坤)의 아들이다. 1429년에 생원이 되고, 여러 번 과시에 응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437년 세종이 흥천사를 중건하기 위하여 대 토목공사를 일으키자 태학을 이끌고, 그 부당함을 항소하다가 왕의 진노를 사 북도로 귀양을 갔다. 그 뒤에 풀려나 태인으로 남귀하여 초사를 짓고 불우헌이라 불렀고, 자호 또한 이를 사용하였다. 불우헌 앞 비수천 주변에 송죽을 심고 밭을 갈아 양성을 힘쓰면서 향리자제를 모아 가르치고, 향약계축을 만들어 풍교에 힘썼다.

1451년에 일민천거의 은전으로 광흥창부승이 되어 은일 6품을 받았고, 이어 인수부승으로 있다가 1453년에 한성판관 성순조의 역권으로 전시에 응시한 결과 급제하여 김수령방의 정과 13명에 드는 쾌거를 얻었다. 1455년 단종이 세조에게 선위하자 전주 부교수 참진사로 있다가 그 직을 사임하고 태인으로 돌아갔다. 그해 12월 조정에서는 인순부승록으로서 좌익원종공권 4등을 내렸다. 이로부터 다시 출사하여 약 10년간, 네 번의 성균관주부, 두 번의 종학박사를 지내고, 사헌부감찰 및 통례문통찬 등을 역임, 69세 때 태인헌 훈도로 있다가 사간원헌납으로 다시 전하여 조산대부 행사간원정언으로 특승되었다.

그러나 1470년에 치사, 귀향하여 후진양성에 힘썼다. 1472년 영달을 구하지 않고 향리 자제를 교화한 공으로 3품산관의 은영이 내리자 이에 감격, <불우헌가> · <불우헌곡>을 지어 이를 축하하였다. 비록 환로의 영달은 없었으나 선비로서의 지개와 풍도를 고수하였고, 안빈낙도하면서 81세로 생을 마감하였다.

그 외에 정극인은 문학에도 특출한 재능을 보여 최초의 가사작품으로 알려진 <상춘곡>과 단가인 <불우헌가>, 한림별곡체의 <불우헌곡> 등을 지어 한국시가사에 공헌을 하였다. 정극인은 원래 광주 두모포리의 태생인데, 처가가 태인이라는 까닭으로 이곳에 우거하게 된 것이다. 송세림의 <동충향음주소> 발문에도 애초의 태인 사람이 아니었음을 밝히고 있다.

참고문헌 -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중에서 정극인의 생애와 활동사항.

## 2. 불우헌, 그를 기리며 엮어진 <<불우헌집>>

20121115 남윤주

20121122 변지선

지금까지 간행된 <<불우헌집>>은 두 종류가 있다. 초간본은 1786년 후손 정효목이 황윤석의 교정을 받아 활자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중간본은 1969년 18대손 정팔성이 석인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초간본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체제는 3권 1책 65장으로 되어 있다. 원래 불우헌이 지은 시문, 가곡, 그리고 벗들과 주고받은 시문을 합하여 1책이 있었는데, 전쟁으로 인한 화재 때문에 많이 일실되고 현재는 그 가운데 일부만 전해지고 있다.

권1에는 시가 실려 있다. 여기에는 불우헌의 시가 개몽음<sup>5)</sup> 외에 35제 57수가 실려 있다. 그 가운데에 타인이 불우헌에게 차운<sup>6)</sup>하거나 받들어 올린 시 34수가 간간히 섞여있다. 수록된 시는 전체적으로 서정적인 분위기가 기본적 바탕이 되며, 시어가 어렵지 않고 평이하다.

권2에는 문과 가곡이 실려 있다. 문에는 소 3편과 자손계, 학령, 기, 서 각 1편과 성종의 유서가 있다. 여기에서 소 3편은 벼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쓴 것이다. 그리고 자손계는 학문의 중요함을 담아낸 문이고, 학령은 교수로 있을 적에 지은 것이다. 독서와 학문을 하는 이유가 행실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한 것이다. 기는 불우헌이 벼슬에서 물러난 후 한가롭게 자연을 즐기며 그대로 몸을 마치리라는 뜻으로 서술된 작품이다. 또 서는 이웃 간의 화목하는 규정을 세운 것이다.

권3에 가곡에는 불우헌가, 불우헌곡, 상춘곡이 실려 있다. 불우헌가와 상춘곡은 국한문이 혼용된 것이고, 불우헌곡은 순수한 한문으로 이루어져있다. 불우헌가는 경기체가<sup>7)</sup> 형식의 단가이다. 불우헌이 후세교육에 힘쓸 때 성종이 내린 상을 감사하면서 한가하고 즐거운 생활을 노래한 것이다. 불우헌곡은 고려 한림별곡의 음절을 사용하여 지은 것이다. 경기체가 형식의 장가이다. 상춘곡은 불우헌이 전라북도 태인에 살면서 지은 곡이다. 청산벽계<sup>8)</sup>의 주인으로서 청풍명월<sup>9)</sup>과 단표누항<sup>10)</sup>의 한평생 잘 놀고 즐겁게 지냄을 노래한 것이다. 또 상춘곡은 우리말을 유창하게 구사함으로서 작자의 시상이 무난하게 전개된 아름다운 작품이다.

참고문헌 : 정극인, 국역 불우헌집, 김홍영, 민족문화추진회, 1998, 1~12쪽.

5) ‘ 열며 읊다’로 정극인(丁克仁)의 시.

6) 남이 지은 시의 운자(韻字)를 따서 시를 지음. 또는 그런 방법.

7) 고려 중기에 발생하여 조선 초기까지 계속되었던 시가 장르.

8) 풀과 나무가 무성한 푸른 산과 물이 맑아 푸른빛이 도는 시내.

9) 맑은 바람과 맑은 달.

10) 누향에서 먹는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이라는 뜻으로, 선비의 청빈한 생활을 이르는 말.

### 3. 작품 활동

20141116 김혁인

정극인은 조선 초기의 문인으로 훈민정음이 반포되기 전에 45년, 그 후에 35년을 살았던 시인이다. 그래서 정극인은 한자와 국문으로 시를 남긴 사람이다. 정극인의 작품은 후손인 정효목이 수집, 간행한 불우헌집(不憂軒集)에 속해있는 불우헌가, 불우헌곡, 상춘곡이 있다.

불우헌곡은 한림별곡으로 부터 시작된 경기체가들 중 남아있는 16번째 작품으로 총 6장이라는 의견이 있고 마지막 낙구를 독립된 장으로 본다는 의견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7장이다. 1472년 작으로 전원생활의 흥취, 교육의 즐거움 등을 말하고 있다. 1472년 이 때는 이미 경기체가가 쇠퇴기에 이른 때이다. 그래서 후렴구가 일반적인 형태에서 변형되어 있고 각 장의 형태 또한 통일되어 있지 않다. 정형의 경기체가 형태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 후의 경기체가 작품들은 변형된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이 불우헌곡은 정형의 경기체가에 대한 변형의 시도로 볼 수 있다. 또 한림별곡의 형식을 본받고 있는데 끝에 독립된 낙구를 가진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불우헌곡 전의 경기체가가 악장이라는 국가적 소용이었다면 불우헌곡은 개인적 소용으로 쓴 작품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불우헌가 역시 1472년 작품으로 구나 행의 구분이 뚜렷하지 못한 줄글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장가인 불우헌곡과 달리 2장의 단가이다. 벼슬을 버리고 전북 태인에서 제자를 양성하고 있을 때 성종이 삼품의장을 내리자 성은에 감동해 지은 작품이다. 성종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품을 칭송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불우헌가는 정극인의 작품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불우헌옹을 뵈고시라, 삼품의장이신 불우헌옹을 뵈고시라’ 라고 칭하여 불후헌인 자신의 호를 사용해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삼아 표현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이 창작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창작했다는 의견의 또 다른 이유는 가사에 나오는 삼품의장은 정극인이 80세에 받은 것으로 81세에 타계한 분이시고 무엇보다 시가의 내용이 회상적인 분위기여서 타계하기 직전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상춘곡은 조선 전기의 작으로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다. 이 작품은 봄의 경치와 이웃에게 산수 구경을 권하는 등 자연에 묻혀서 사는 풍류를 노래하고 안빈낙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또 설의법, 대유법 등 다양한 표현법이 쓰여 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 종종 실리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가사문학의 효시라는 의견이 있고, 최초의 작품으로서는 형식이 정제되어 있다는 점과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언어가 15세기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효시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상춘곡은 이서의 악지가, 송순의 면앙정가, 정철의 청산별곡 등으로 이어지면서 호남가사문의 바탕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김성기 (2003) 丁克仁의 〈不憂軒歌〉에 나타난 時調性 研究 (155~177)  
- [www.seelotus.com/gojeon/gojeon/kyeong-gi/bul-u-heon.htm](http://www.seelotus.com/gojeon/gojeon/kyeong-gi/bul-u-heon.htm)

## 4. 대표작품 - 상춘곡

20141127 오유나

### (작품의 의의와 특징)

정극인의 대표작으로 총 39행 79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행마다 4음보의 율격을 가지는 정형 가사이다. 정극인의 시문집인 <불우헌집> 2권에 실려 있는 최초의 가사 작품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상춘곡- 송순의 면앙정가 - 정철의 성산별곡으로 이어지는 강호가도의 시풍 형성의 계기가 되는 작품으로도 평가된다. 상춘곡의 탄생배경은 단종폐위와 관련이 있는데, 폐위직후 작가는 벼슬을 사퇴하고 고향인 전라북도 태인에 은거하면서 후학을 양성할 때 이 작품을 지었다. ‘봄을 맞아 경치를 구경하며 즐김’이라는 ‘상춘’의 의미 그대로 속세를 떠나 그곳의 아름다운 봄 경치를 노래한 글이다. 정극인의 몰아일체적인 가치관을 엿볼 수 있으며 풍류를 즐기면서 안빈낙도하는 양반 사대부의 삶이 생생히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상춘곡은 새로운 가사 형식을 가지는데, 이는 곧, 긴 시가형식으로 된 첫 작품임을 의미한다. 전통시가의 운율을 살리면서도 짧은 시가 형식을 극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고려 말의 승려인 나옹화상 혜근이 지었다는 <서왕가>가 가사 갈래 문학 작품의 시작이라는 학설도 있다.

### (작품 내용 및 창작 당시 배경)

작품내용은 서사·춘경·상춘(취락)·결사의 4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사에서 속세를 ‘홍진’이라는 단어로 부정적이게 묘사하며 세속의 사람들을 화자와는 대조적인 사람들로 표현한다. 그러므로 서사의 내용은 그 속세를 떠나 벽계수를 앞에 두고 초가삼간을 지어 자연을 벗 삼은 풍월주인적인 삶을 노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춘경과 취락 단락에서는 봄 경치를 즐기며 자연과 친화적인 삶이 비유적, 감각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새라는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화자가 느끼는 흥겨움 등의 감정을 투영시키고 있다. 또한, 봄의 아름다움을 시각적인 이미지로 표현하여 눈앞에서 보는 것과 같은 생생함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공명(功名)도 날 꺾우고, 부귀(富貴)도 날 꺾우니’라는 주객이 전도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세속의 명리를 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 이 삶에 만족한다는 것으로 글을 끝맺고 있다.

이 글을 통해 지방에서 실력을 쌓아 중앙 정계로 진출하려다가 거둬지는 실패를 겪어 자연 속에서 고결히 사는 산림처사로 자신들의 씩씩함을 포장한 당시 조선 전기 사림파의 현실을 알 수 있다.

### (후세의 평가와 문제점)

상춘곡에 대한 후세인들의 견해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몰아일체와 안빈낙도하는 사대부가사의 지평을 열어 가사라는 새로운 갈래를 개척했다고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적지 않게 있었다. 그 근거로 <상춘곡>이 실려 있는 <불우헌집>이 정극인 사후에 후손에 의해 편찬되어서 임진왜란 전 표기법이나 어휘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효시작으로 보기에 형식이나 표현이 너무 세련되고 정돈되어져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창작 당시에 표기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것은 국문 시가나 소설을 다룰 때 거의 공통적으로 당면하는 고민이다. 작품을 베껴 적는 사람이 표기법을 바꾸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어서 작자 판별을 위한 증거가 되기 어렵다는 재반론을 들 수 있어서 그 진위여부를 가리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 5. 정읍 무성서원 (井邑 武城書院)

20141139 현진



무성서원은 신라후기의 학자였던 최치원과 조선 중종(재위 1506~1544)때 관리였던 신잠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서원으로, 교육기능과 제사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무성서원은 최치원 외에도 조선 시대의 정극인, 신잠, 송세림, 정언충, 김약목, 김관 등을 배향하였다.

무성서원이 위치한 곳은 전라도 태인, 오늘날의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이다. 서원이 위치한 태인은 이미 신라 시대에 태산현이 설치되었던 곳으로, 신라 시대의 학자였던 최치원도 이곳의 현령으로 지냈다. 최치원이 합천의 군수로 전출된 뒤, 고을 사람들이 최치원을 기리기 위하여 유상대 위에 생사당을 지었는데 이것이 선현사이고, 조선 시대인 성종 15년(1484년)에 선현사를 지금의 자리로 옮긴 것이 바로 태산사이다. 이후에는 숙종 22년(1696)에는 원래 태산사라고 하던 것을 임금으로 부터 이름을 받아 무성서원이라 하게 되었다.

무성서원의 사당은 정면 3칸, 강당은 정면이 5칸이고, 강당과 재실의 양식이 모두 마루와 온돌로 이루어져 있다. 무성서원은 다른 서원과 달리 재실이 담 밖에 세워졌다는 구조적인 특징이 있다. 무성서원에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사당, 현가루, 동·서재, 비각, 명륜당 등이 있다.

무성서원은 조선 후기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남아있던 47개 서원 중 하나이다. 현재 무성서원에는 성종 17년(1486) 이후의 봉심안, 강안, 심원록, 원규 등의 귀중한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호남 지역의 수많은 선비를 길러낸 가장 큰 규모의 서원이자, 조선시대의 교육활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이다.

※무성서원은 2011년 7월 28일에 '정읍 무성서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무성서원 → 정읍 무성서원)(2011.07.28 고시)

자료출처: '문화재청' <<http://www.cha.go.kr>>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정읍시' <<http://mail.jeongeup.go.kr>>

사진출처: <<http://blog.daum.net/choews119/15848409>>

## 6. 정극인 에게 편지

20131140 허선희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극인님을 조사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로 남겼습니다. 먼저 정극인님의 생애를 쪽 살펴보면 거의 여자들이나, 부인이 야기가 없는 것 같은데 남자로서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나요? 있었으면 왜 작품에 나오지 않았나요? 저희는 조사를 하면서 이 점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상춘곡으로 멋지게 봄을 예찬하셨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 중 봄이 가장 감명 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은 환경이 많이 변하면서 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이 점이 많이 아쉬우신가요? 세 번째로 불우험가라는 작품이 벼슬에서 물러나 임금에게 입은 은혜에 감사하며 지은 곡이라고 하셨는데, 벼슬에서 물러나신 이유는 무엇이고, 물러나서 생활해보시니 벼슬에서 있으셨을 때와의 어떤 점이 다르셨나요?

또한 당대에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고,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는데 벼슬을 사임하고 귀양을 가셨을 때 살던 곳이 그리지 않으셨나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이 좋았겠지만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이 외에도 조선시대에 최초의 가사 작품을 쓰신 인물이 되신 소감이 어떠신지 등 정극인님에게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정극인님의 작품을 조사하다 보니, 좋은 작품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더 많은 작품을 남겨 주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남은 작품들도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극인 님의 작품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 ◆참고자료◆

네이버 블로그 <http://rudska1466.blog.me/130005433104>

정극인 저자, 현종오 역 ‘홍진에 묻힌 분네 이내 생애 어떠한고’

웹문서 <http://www.woorimal.net/hangul/gojunsiga/ka-sangchungok.htm>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83%81%EC%B6%98%EA%B3%A1>

다음 블로그 <http://blog.daum.net/wuban777/13428564>

네이버 블로그 2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lue11xx&logNo=70088053880>

자료출처: ‘문화재청’ <<http://www.cha.go.kr>>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정읍시’ <<http://mail.jeongeup.go.kr>>

사진출처: <<http://blog.daum.net/choews119/15848409>>

## 5조 - 정읍사

조장: 20121137 정지안

조원: 20141104 고현하

20141115 김태영

20141117 남연재

20141129 이기일

20141140 황수정

### 1. 정읍사의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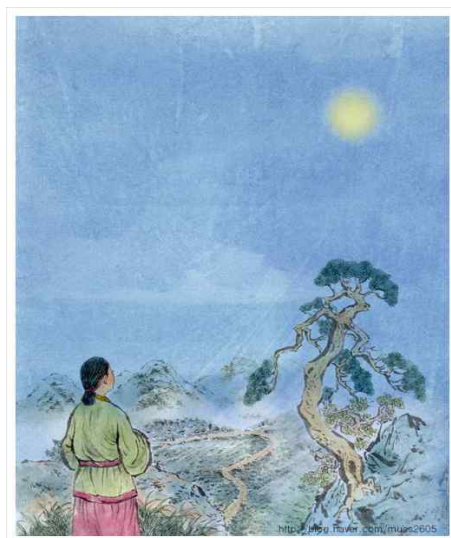
백제 가요 <정읍사>가 생긴 곳에 조성된 정읍사 공원에는 한 여인이 자리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 여인은 조금 긴 저고리를 입고, 머리는 양쪽으로 쪽 짓고 두 손을 마주 잡고 가슴 위에 얹은 채 단정한 모습이다. 이 여인에게에는 정읍시 신정동의 샘바다 마을을 배경으로 얹힌 슬픈 설화가 있다. 그 설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인이 행상인인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아 산마루에서 기다리며 혹시 남에게 해를 입지는 않았을까, 주색에 빠지지 않는 않았을까 걱정하며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실제로 <정읍사>를 살펴보면 여인은 달에게 소원을 빌며 남편이 있는 곳까지 비취달라는 부탁이나 남편의 무사귀환을 비는 모습이 언급된다. 하지만 끝내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여인은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이 올라가서 기다린 돌 혹은 오랜 시간동안 남편을 기다리다가 죽어서 돌이 된 여인을 가리켜 망부석이라고 부른다. 망부석 석상에는 한 여인이 사랑하는 임을 기다리다가 그대로 돌이 되어버린 슬픈 사랑 이야기가 담겨있다. 이러한 망부석 설화는 구비문학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후대에 이르러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다.

### 2. 정읍사 작품/해석

달하 노피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기야 어강요리  
아으 다롱디리

저재 녀러신고요  
어기야 존데를 드더올세라.  
어기야 어강요리  
아으 다롱디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기야 내 가논데 점그를세라.  
어기야 어강요리  
아으 다롱디리



## ●해석

제1연에서 행상을 나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의 안녕을 달에게 기원하는 간절한 발원으로부터 시작된다. 곧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기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는지 몰라 초조하고 안타까운 불안한 심정을 달에 의탁하여 노래하되, 단순한 서정의 표출이 아니라 달에게 남편의 안녕까지 도모해 주기를 바라는 고대인의 소박한 기원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제2연에서는, 현실적으로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의 행방도 소식도 몰라 애타우며, 불안에 사로잡히려는 자신의 마음을 붙들고자 ‘전주 저자에나 가 계시는지요’라는 의문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회구하는 가냘픈 여심을 드러내면서 시작된다.

이와 같이 마음의 안정을 애써 도모해 보기도 하나, 남편에 대한 불안과 초조는 더욱 견잡을 수 없어 이윽고는 ‘어귀야 존딕를 드딕올세라’ 하고 마음 속 깊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갈등을 실토하고 만다.

제2연의 어절 풀이에서 ‘녀러신고요’의 해석은 그 본래의 뜻 또는 원형을 ‘녀러이신고요’로 풀이함이 일반적이거나, ‘다녀신고요’ 즉 ‘다니시는가요’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또 한편에서는 ‘녀더신고요’의 변형으로 보아 ‘녀더시던고요→녀시던고요→가시던가요’로 보는 견해도 있다. ‘존딕’은 ‘진데’·‘진곳’ 즉 ‘수령물(진탕물)이 고인 곳’으로 해석되나, 이 말은 주색을 비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드딕올세라’는 ‘디디올세라’ 곧 ‘디디면 어쩔까나’ 하는 근심걱정이 쌓인 의문형으로 이루어져서, 표면상으로는 진데 곧 더러운 수령물을 디디면 어찌나 하는 표현이지만, 사실은 ‘주색에 빠지면 어찌나’ 하는 속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제3연에서는 남편의 신변에 관한 견잡을 수 없는 불안과 의구심이 절정에 이르고 보니, 행상을 해서 버는 돈도 재물도 아랑곳없이 한시바빠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어느 것이나 다 놓아두고 한시바빠 집으로 돌아와 주소서’ 하고 절박한 하소연을 부르짖고는, 제2연구에서 다시 한숨을 돌이켜 ‘어귀야(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내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 어두워질까(변할까) 두렵소이다그러(변하면 어쩔까나)’ 하는 걱정과 애원의 말로써 끝을 맺고 있다.

## ●작품의 의의

정읍사는 다른 고전시가(詩歌)와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동안 유동과 적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다. 남편에 대한 지고지순한 아내의 정절(貞節)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도 추앙받을 뿐만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여 후대에까지도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읍사는 단순히 고대가요로 가창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로의 모색을 통하여 생명력을 지속하고 있다. 백제가요 정읍사는 오랫동안 대중들에게 가창되어 오면서 내재된 보편적인 정서나 작가의 주제적 변이를 통해 문학적인 콘텐츠로서도 그 가치와 활용을 높이 평가받아왔다. 백제가요 정읍사가 ‘간절히 남편을 기다리는 처(妻)의 노래’는 소극적인 여성을 노래했다면, 현대적으로 변용한 정읍사의 작품들에서는 여성의 개성적 심리를 밝히고자 하는 부분으로 변용하여 현대의 독자로 하여금 흥미를 느끼게 했다. 정읍사는 민중의 노래이면서 궁중의 노래이기도 하다. 시간과 공간, 성별과 계급을 초월하여 가창되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그 유연성을 검증(檢證)받았다는 증거이고, 세대를 초월해서 현재까지도 대중의 관심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처럼 정읍사를 후대에 와서 변용한 창작자들은 단순히 백제나 고려의 노래로만 규정하지 않고 현실의 노래로 가창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 그리하여 대중의 현실이나 시대의 모습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지향하는 바를 성실하게 묘사하고 있다.

### 3. 정읍사 관련 사진



### 4. 또 다른 한의 정서, 치슬령곡

작자 미상의 신라 눌지왕 때 지어진 노래이다. 가사는 전하지 않고 《증보문헌비고》 권 106 악고(樂考) 17에 배경 설화만이 간단하게 소개되어 전한다. 내용을 다음과 같다.

*눌지왕(訥祗王) 때에 박 제상(朴堤上)이 왜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아니하자, 그 아내가 슬퍼하고 사모함을 이기지 못해서 매일 같이 세 딸 [娘子] 을 데리고 치슬령에 올라서 왜국을 바라보고 통곡하다가 마침내 선 채로 돌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그녀를 모시는 사당이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치슬령곡>은 후세인들이 앞의 이야기를 소재로 지어 그녀에게 제사를 지낼 때 바친 제의가(祭儀歌)로 추정된다. 자세한 내용과 형식은 파악할 수 없으나, 제의가의 성격으로 보아 찬양이나 위로의 내용이었으리라 추측된다. 후대에 김종직(金宗直)이 이것을 소재로 하여 <치슬령곡>이라는 한시를 짓기도 하였다.

#### 김종직의 『치슬령곡』

치슬령에서 일본 쪽 바라보자니  
하늘에 붙은 바다 가이없어라.  
다만 손 흔들며 떠나시던 임  
죽었는가 살았는가 소식이 없네.

아! 소식 끊어진 영이별이여!  
사생간(死生間) 다시 볼 날 언제 있으료?  
하늘 부르짖다 문득 망부석 되니  
그 열기 천 년토록 벽공에 뻗네.

## 5. 만약에

-만약 정읍사의 여인이 요즘과 같은 현대 여성이라면?

1) 정읍사는 화자로 나오는 여성이 행상인 자신의 남편이 무사하도록 달에게 기도를 올리는 내용이다. 하지만 만약 정읍사의 화자가 현대여성처럼 개방적이라면 과연 이 여성은 자신의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까? 아마도 이 여성은 남편을 기다리다 시간이 흘러 남편을 잊고 다른 남성을 만나거나, 기다리지 않고 새로운 남성을 만날 것이다. 심하게는 남이 올 때까지 다른 남성을 만나다 남편이 돌아오면 다시 남편에게 가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과거에는 여자의 정절을 중요시하고 사회가 개방적이지 않아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지만 요즘 현대 여성은 과거와 달리 사회적으로도 많이 진출했고 개방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일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 이기일

2) 정읍사에서 남편은 행상인이고 그 아내는 행상 나간 남편을 걱정한다. 이 작품이 창작되고 기록된 시기에는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에게 연락할 수단이 거의 없었다. 말로 소식을 전해 듣거나 편지를 사용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행상인의 특성상 이 두 가지 수단으로 자신의 안부를 전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행상인의 아내는 남편이 떠나있는 동안 남편의 안위에 대한 어떤 소식도 듣지 못한 채 그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발달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연락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읍사의 화자를 현대 여성으로 설정한다면 남편의 안전을 기도하는 대신 전화나 문자로 자주 안부를 물을 것이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정분이 날까하는 걱정은 스마트폰, CCTV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남편의 위치를 감시하는 것으로 바뀔 것이다. 결과적으로 행상인 남편을 둔 현대 여성은 남편의 안부에 대해 정읍사에 나오는 행상인 부인보다 신경을 덜 쓸 것이다. 현대에서는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정읍사 속 상황과 비슷한 처지가 된다면 기존 정읍사가 지닌 한의 정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남연재

3) 요즘 현대의 여성들은 자기계발에 힘쓰며 주체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직장을 가진 여성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으며 예전처럼 더 이상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림을 꾸려갈 능력을 갖추고 있다.

만약에 현대판 정읍사가 쓰인다면 현대판 정읍사는 백제 가요 정읍사처럼 여인에 대한 안타까움과 끝내 만나지 못한 두 사람에 대한 애뜻함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시대가 개방적이 되어감에 따라 백제 가요인 정읍사 여인처럼 굳이 그 상대를 기다려줄 필요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현대 여성들은 상대(배우자 혹은 애인)보다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고, 옛날처럼 수동적인 아내이기 보단 능동적인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대가 개방적이 되어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쉬워졌으며 사람들도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거나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비록 현대판 정읍사는 백제 가요의 정읍사처럼 극진한 아내의 사랑과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겠지만,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발전하는 현대 여성의 멋진 모습과 이별에 담담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 기대된다. -고현하

4) 현대의 여인은 정읍사에 나오는 여인과는 사뭇 다르다. 정읍사에 나오는 여인은 임이 안전하게 자신에게로 와줬으면 하는 마음을 헌신적으로 달에게 간절히 기도한다. 그러나 현대의 여인은 헌신적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 물론 헌신적으로 기다리는 여성들도 있을 것이지만 대다수의 여성들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기다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정보통신의 발달을 꼽을 수 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쉽게 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여자가 남자를 기다리는데 남자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여자를 초조하게 만든다. 여자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연락만 준다면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는데 연락이 없으니 화가 나는 것이고 심하면 이별까지 통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정읍사의 여인은 초조하고 불안하게 기다려야만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다.

정읍사에 나오는 여인은 헌신적으로 임을 기다렸다. 하지만 아쉬울 것이 없는 오늘날의 여성들은 쉽게 포기하고 만다. 오늘날, 헌신적으로 한 남자를 위해 기다리는 여성을 찾기는 드문 일이다. 그래도 정읍사의 여인처럼 헌신적으로는 아니지만 적어도 기다림의 미덕을 갖는다면 좋지 않을까 싶다. - 김태영

5) 정읍사의 여성 화자처럼 기다리는 현대여성은 과연 몇이나 될까? 현대 사회는 속도를 매우 중시하고, 이는 현대인들의 정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과거 사람들에 비해 빨리 포기하고, 쉽게 좌절한다. 이에 비하면 정읍사의 여성화자는 비록 돌이 되었을지라도 현대인들보다 행복하지 않았을까? 올지 오지 않을지 모르는 대상을 기다리는 마음. 정읍사가 아름다운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황수정

## ●정읍사 문화제

1.안내 사이트: [www.jchf.or.kr](http://www.jchf.or.kr)

2.소개: 정읍시 주최로 10월 중·하순에 열리는 문화제. 백제가요 정읍사 가요제를 메인 행사로 하며 시민들을 위한 기타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3.행사 내용 일부

▷ 기념행사

- 전야제(거리 퍼레이드): 정읍사문화제 및 시민의 날을 맞아 시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전야제 거리행진을 통해, 시민의 화합분위기 조성과 아울러 축제의 성공적 개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채수의례: 채수를 통해 정화수의 의미(정읍사 여인처럼 행상나간 남편의 무사 기원, 가족의 행복을 비는 어머니의 마음, 혼례의식 등)를 되새김.

- 정읍사 여인 제례: 정읍사 여인제례를 통하여 부부사랑의 소중함과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에 대한 인식고취.

- 시민의 날, 정읍사문화제 기념식(식전공연): 시민의 날 기념식 및 시민의장, 부도상, 장수상 등 모범시민 표창.(화합과 애향심 고취)

## 6조 - 정지용

20101123 오효석 20131123 육소연 20141106 김다혜  
20141120 박은지 20141118 박상현 20141130 이상은

### 1. 생애

#### • 출생과 결혼



#### • 학창시절



#### • 문단 데뷔



#### • 문단 활동



•6.25 이후



정지용(鄭芝溶)

1902. 6. 20- 1950. 9. 25

1902 6월 20일 장남으로 충북 옥천에서 출생.

1918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해 이때부터 문학 활동을 시작함. 교내 잡지 <요람>에 참여해 김영랑, 홍사용, 박팔양, 이태준 등과 교류함.

1919 12월 <曙光(서광)> 창간호에 단편소설 '三人(삼인)'을 발표. 이것이 정지용의 유일한 소설이자 첫 작품임.

1926 공식적인 문단활동 시작. <학조> 창간호에 '카페 프란스'를 비롯하여 동시 '감나무', '띄' 등을 발표함. 일본 문예지 <근대풍경>에 일본어로 된 시 발표.

1927 '갑판 우', '바다', '향수', '오월소식', '선취1', '압천', '풍랑몽'을 비롯하여 일본어 시 등 40편이 넘는 시를 왕성하게 발표.

1933 문학친목단체 '구인회'에 참여.

1939 <문장>지 창간과 함께 시 부문 심사위원이 되어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 김종한, 이한직, 박남수 등을 등단시킴.

1941 제2시집 '백록담' 출간.

1950 6.25 발발. 이후의 행적에 대한 증언이 엇갈려 월북설, 납북설, 월북중 폭사설, 미군 처형설 등이 제기되었다. 한국전쟁 발생 당시 정치보위부로 끌려갔다 평양감옥으로 이감. 이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

1988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상당수의 금지 문인 작품이 풀리고 출판이 허용됨.

## 2. 대표작품 활동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 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아  
 (중략)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밀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 버는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참참 꿈엔들 잊힐리아



<정지용 - 향수 중에서>

1927년 조선지광(朝鮮紙光) 65호에 실린 작품으로 일본 동지사대학에 입학한 뒤 쓴 작품이다. 정지용은 전통적인 고향을 향한 그리움과 향토를 담은 작품을 많이 만들었는데, 고향에 대한 향수를 표현했고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해 상실된 조국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했다. 정지용의 향수가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는 이유는 개인의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담고 있기보단 한국인의 정서의 알맞은 전형적인 고향의 모습을 담고 있고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감각적인 이미지들과 향토적 소재를 사용하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수는 고향의 풍경을 그린 다섯 개의 연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리고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라는 후렴구가 반복됨으로 각 연에 그려진 고향의 모습을 사실적이고 고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고향은 평화롭고 아늑한 곳, 부모와 형제가 살고 있는 곳, 유년의 꿈을 키우던 곳, 힘들지만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표현되어 고향의 모습과 후렴구가 섞이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향수는 반복 형식처럼 구성되었는데 각 연 모두 ~던 곳으로 끝내며 그리움을 불러 일으키는 고향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 뒤에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아’라는 독백이 이어짐으로써 고향 또는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 또 1, 3, 5 연은 고향의 정겹고 따스한 모습을, 2, 4 연은 고향의 아픈 모습을 표현하며 고향의 밝고 어두운 모습을 번갈아 보여주며 고향을 아름답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힘겨움이 함께 존재하는 곳으로 표현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감각적인 우리말 구사와 청각적, 시각적 이미지와 공감각적 이미지 등의 이미지 활용으로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3. 정지용의 문학의 향기

정지용은 1930년대 시단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현대시의 새로운 발전을 주도한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정지용은 평생토록 시를 위해 살다간 사람이었다고, 그의 시에 대한 애착은 그가 남긴 시에서 나타나는 언어의 감각미와 독특한 표현과 시어구사에서 느낄 수가 있다.

정지용은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고향에 대한 시를 동시와 민요적인 율조를 지닌 민요풍의 시로 표현하였다. 고향을 떠나 타향에 살면서 느끼는 고향을 향한 향수와 상실감 등을 나타낸 것이다. 그 소재들은 농촌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그 고향에서 태어나 자랐으면 누구나 알만한 전설이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등이었다. 또 고향의 세시풍속들도 노래했는데 어린 시절 흔히 즐겼던 놀이들을 소재로 하기도 했다. 그래서 정지용의 초기 시들, 고향을 소재로 한 시들은 고향 사람들의 소박한 모습을 나타내며 차분하고 고요한 정감을 노래했다.

정지용이 일본 유학 시절에는 서구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새로운 표현기법인 ‘포멀리즘 기법’으로 시를 창작하기 시작하였다. 작품 속에서 소리를 강조하기 위해 큰 활자로 표기하거나, 나뭇잎의 기호와 표시로 그 소리를 시각화 하는 표현으로 의도적인 시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흥미로운 특징을 보였다. 또한 그는 당대의 시인들과는 다르게 새로운 언어를 구사하면서 심상의 형상화를 위해 불필요한 꾸미는 말들을 모두 배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에서 본 정지용의 작품들이 대부분 속마음의 갈등과 고향에 대한 향수, 동요를 노래하고 있다면, <산>의 시편에서부터는 전혀 다른 평안한 산수시의 세계가 펼쳐진다. 자기 소멸과 속세를 끊고 자연으로 돌아와서 일체가 되고자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시에서 두드러지는 형상을 보인다.

우리 근대시사에서 정지용만큼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여 새로운 시적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는 시어구사에 있어서 탁월한 감각을 가졌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 속의 상황을 시각적 심상으로 형상화 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정지용의 작품 “향수”에서 한 대목을 보면 ‘황소의 울음 소리’를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과 같이 표현한 부분이 있다. 즉,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시각화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어떠한 대상을 형상화하고, 심상을 통해서 그 대상을 표현하였다.

정지용은 서구의 영문학을 전공한 시인답게 형태주의적 기법을 시도한 최초의 이미지스트이자 모더니스트였다. 대상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표현과 같은 시적 기교는 그의 시가 이미지즘 계열의 초기를 이루는 징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시어를 고르고 다듬는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지 않는 고어나, 방언을 시어로 사용하였다. 또한 언어를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변형시켜 사용하였고, 산문형에서 쉼표나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계속 연결되는 연계적 구성을 보여 주었다.

시에 대한 애착과 전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표현 방법을 개척해 나간 정지용은 천재시인이라고 불릴 만하다. 1920년대 지나친 낭만주의에 빠져있던 우리 시단에 그는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어주었고, 한국 근대시사에 커다란 발전에 기여를 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일이다.

참고문헌 : 김학동, 정지용연구, 민음사, 1997

#### 4. 지용제 (芝溶會)

지용제(芝溶會)는 우리 민족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한 시인 정지용을 추모하고, 그의 시 문학 정신을 이어가며 더욱 발전시키자는 계기로 매월 5월에 여는 시인 정지용의 고향 옥천에서 열리는 문학축제이다.

정지용(鄭芝溶)은 1920년대~1940년대에 활동했던 시인으로 한국 현대시의 성숙에 결정적인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88년 정지용의 작품이 판매금지가 해제되자 그의 시를 아끼고 사랑하는 문인들과 제자들이 지용회를 결성하였다. 그해 5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처음 개최하였고, 이듬해부터 충청북도 옥천으로 옮겨 그의 생일인 5월 15일을 전후하여 해마다 열고 있다.

지용제는 옥천군과 옥천문화원이 주최하고 지용회, 옥천청년회의소, 옥천문인협회 등 각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여 정지용 생가와 정지용문학관, 관성회관, 옥천문화예술회관, 옥천공설운동장과 시내 일원에서 열린다. 행사는 시상식을 비롯하여 지용문학포럼, 지용백일장, 음악회, 사진전시회, 학생사생대회, 뮤지컬 콘서트 등으로 이루어지며, 축제 기간에 서울과 옥천을 왕복하는 시(詩) 문학 투어 문학관광열차가 운행되기도 한다.

해마다 지용 문학상을 선정하는데, 지용 문학상은 시인 정지용의 문학적 성과와 문학사적 위치를 기리기 위한 것으로, 1989년 시와 시학사에서 제정하여 한 해 동안 발표된 중진 및 중견 시인들의 작품 중 작품성이 뛰어나고 낭송하기에 적합한 시를 수상작으로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되고, 시와 시학사에서 발간하는 시 전문 계간지 <시와 시학사>에 특집 시인으로 다루어진다.

지용 문학상의 종류로는 정지용문학상, 지용신인문학상, 전국지용백일장, 연변 지용시문학상, 지용청소년문학상이 있다. 이 중에 지용신인문학상은 한국문단을 이끌어갈 역량 있는 시인발굴을 위해 동양일보가 옥천군의 후원으로 1995년 제정하였다. 시부분에 주어지는 문학상으로 당선자에게는 5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주어지며 동양일보를 통해 발표된다. 지용백일장은 전국 초, 중, 고, 대학 및 일반인의 문예 창작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열린다. 연변지용 시문학상은 중국연변 동포들에게 지용시 문학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중국 현지에서 발표된 동포들의 문학작품 가운데 예술성이 가장 뛰어난 작품을 선정하여 시집 발간금을 지원한다. 지용청소년문학상은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학발전과 문예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해 열린다.

지용제 행사 중 마지막 날엔 이벤트 행사 및 체험 행사, 부대 행사, 연계행사 등 다양하게 준비 되어 지용제와 함께 즐길 수 있다. 이벤트 행사로는 문학수첩 나누어 주기, 향수 손수건 나누어주기, 팝콘 나누어주기, 정지용의 시 외워보기 이벤트, 가훈 써주기 등이 있다. 체험행사로는 도자기 만들기, 국악기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도서 교환전, 미니 숯대 만들기 등이 있다. 부대 행사로는 유로번지, 회전그네, 바이킹, 가족 건강 체크, 수지침, 서금요법 진료 등이 있다. 연계행사로는 옥천특산물 홍보판매, 시문학 자전거 투어, 전국 검도대회 등의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여 정지용 삶의 향기를 더욱 느끼며 그의 문학을 접하며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옥천의 문학축제인 지용제가 열린다

참고문헌: “지용제”. 정지용 사이버문학관.

## 5. 정지용 생가 이야기

정지용은 6.25 발발 와중에 갑자기 행방불명된다. 그 후 그를 월북 작가로 분류해 그의 작품 모두를 판매금지 시켰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1988년 판매금지가 풀리게 되는데, 그 이듬해 ‘지용회’(정지용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정지용 생가를 복원시킨다. 그리고 복원 이후 일반인에게 정지용 생가가 공개되기 시작했다.

정지용 생가는 정면 3칸, 측면 3칸이며 부엌을 제외하고 정면 2칸은 퇴칸 구조이다. 생가의 전체적인 형상은 ‘ㄱ’자 집이고, 마주보이는 방향으로 정면3칸, 측면 1칸의 ‘—’자형 창고가 있다. 주거용 ‘ㄱ’자 집은 부엌 뒤로 방 1칸을 더 내어 ‘ㄱ’자를 이루는 특이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방은 뒤뜰 담 쪽으로 분합문(주로 대청과 방 사이 또는 대청 앞쪽에 다는 네 쪽 문)이 나있으며 방 안쪽에 안방과 연결되는 통로가 있는데 길이는 5미터 정도, 사람 하나 지나갈 만큼 좁다. 양쪽 방을 오갈 수 있는 이 통로는 양쪽 방에 문을 달아 폐쇄형(내부로 출입할 수 있는 구조)이다.

정지용 생가의 부엌구조는 민가의 일반적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내외가 엄격했던 우리나라에서 부엌은 여성만의 활동 영역이었으며 동시에 취사와 난방을 위한 목적성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정지용 생가의 부엌처럼 보통의 민가에서는 땀나무와 불쏘시개를 보관 할 수 있는 창고의 용도로도 일부 사용되었다. 부엌 문 옆에는 표시판이 하나 있는데 그의 태어난 년도와 날짜, 생가가 언제 허물어지고 다른 집이 지어졌는지를 동판에 새겨놓았다.

정지용 생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시선이 가는 곳마다 정지용의 시를 걸어 놓아 시를 음미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둘째, 정지용 생가는 방문을 항상 열어둔다는 점이다. 방문을 열어두는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한약방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셋째, 정지용 생가에는 두 개의 사립문이 있다는 것이다. 한 개의 문으로 드나드는 번잡함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추측도 있고 물레방아 쪽 사립문은 텃밭 드나드는 용도로 쓰였다는 추측도 있다. 넷째, 보통의 경우 장독대는 뒤란에 위치하는데 정지용 생가에는 우물가 담장 밑에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우물 옆의 낮은 굴뚝이다. 낮은 굴뚝의 연기는 바로 흩어지지 않고 집 마당을 휘돌아 나가며, 연기는 소독 기능까지 한다고 하니 지혜의 소산 같다.



자료출처: “생가 이야기1,2”. 정지용 사이버문학관.

## 7조 온달설화

20091111 박경하 20131113 문소윤  
20141121 박현경 20141119 이소정 20141107 김민정

### 1. 온달설화의 간단한 줄거리

온달은 고구려 사람으로 용모는 못생겼으며 나무를 하며(혹은 구걸을 하며) 홀어머니를 봉양하였다. 당시 재위중이던 평원왕에게는 평강공주가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곧잘 울어 왕이 바보온달에게 시집을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곤 했다. 후에 평강공주가 자라 혼기가 가까워졌을 때 왕이 상부 고씨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하자 공주가 스스로 온달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하였다. 이에 분노한 평원왕은 공주를 내쫓는다. 평강공주는 온달과 그의 어머니를 설득하여 결혼하여 생활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몸에 지니고 나온 패물을 팔아 병든 국마를 사서 잘 길러 준마로 만들고, 이로 무예와 사냥을 하게 하였다.(글을 가르쳤다는 기록도 있다.) 낙랑언덕에서 진행하는 사냥대회에서 큰 기량을 발휘하여 평원왕을 놀라게 하였고, 후에 후주의 무제가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예산에서 이를 막아 부마로 인정받는다. 590년에 온달은 신라에게 빼앗긴 한수 이북의 땅을 수복하고자 왕에게 군사를 청해 출병하였으나 아단성에서 전투 중 화살을 맞고 전사하였다. 이에 장례를 지내 주려 하였으나 관이 땅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자 공주가 관을 쓰다듬으며 달래니 관이 움직여져 장사를 지냈다고 한다.<sup>11)</sup>

### 2. 온달설화의 시대적 배경

온달설화는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설화로 고구려의 온달이라는 자와 연관이 있는 설화이다. 온달은 생년은 미상이고 몰년만 590년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당대의 사회상을 조금 알아볼 수 있는데, 당시는 무를 숭상하던 경향이 강했다.(중국의 남북조와 한반도내의 삼국시대로 인해 무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특히 중국의 수나라와 온달이 정식으로 사위로 인정받게 되었던 사건의 빌미인 후주 등이 빈번히 침략함에 따라 이러한 사회상은 더욱 굳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기존 귀족이었던 부류나 기득층이 신흥 무신들에게 밀리는 경우도 생겼다고 한다.

국제적 상황으로 보면 북쪽의 중국에는 여러 국가 북제, 진, 북주, 수나라와 같은 국가가 존재하였고, 이중 온달설화에는 고구려와 후주(북주)와의 전쟁이 나타나는데 이처럼 중국쪽 국가와의 전투가 자주 일어났었다. 한반도 내에서는 특히 백제와 신라간의 상황에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신라는 강국으로 일어서는 중이었고, 백제는 성왕이 죽게 되는데 이때 신라와의 관계가 크게 틀어지게 된다. 특히 이 시기에 주인공의 신분과 줄거리가 어느정도의 유사성을 지닌 '서동요(혹은 서동설화)'가 생긴 점에서 당대에 비슷한 설화가 두 개가 존재했던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혼란했던 시대에 영웅과 같이 뛰어난 사람을 바라던 당시 사람들의 심리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온달설화는 북쪽에서의 중국민족의 침입과 한반도 내의 혼란한 국가 간의 상황,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무예 대한 열망과 이에 따른 신흥 무인들의 진출과 이에 저항하는 기존 귀족층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설화이다.

11) , 「온달설화고찰」, 『학산 조종업 박사 화갑기념논총 동방고전문학연구』(간행위원회, 1990)

### 3. 온달설화의 인물

온달설화에는 크게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다. 온달과 평강공주 그리고 평강공주의 아버지인 평원왕이다. 이번 소제목 아래에서는 온달설화에 등장하는 인물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온달이다. 온달은 흔히 바보로 묘사가 된다. 하지만 모자라거나 무지하기보다는 우직한 품성이 강한 인물로 보인다. 또한 육체적 능력이 우월하고 무예가 뛰어나 여러 방면에서 두각을 보이고 후에 후주의 무제의 군대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한다. 또한 책임의식이 강하여 자신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수행하다가 전사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온달을 볼 수 있으나 온달이 귀족이나 왕족의 출신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내용은 아래에서 차후에 다루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 평강공주를 살펴보겠다. 평강공주는 일단 자기 주관을 뚜렷이 관철하는 인물이다. 당대의 여인(특히 공주)들이 정략적으로 결혼하고 자신의 의지를 많이 포기하는 반면에 부왕과의 절연을 각오하면서 자신의 주관을 관철한다. 또한 재산 등을 팔아서 여러 방면에 투자하고 온달을 보필하는 모습에서 현명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평원왕은 딸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모습으로 보통 많이 해석한다.<sup>12)</sup>

### 4. 온달설화의 의의

온달설화는 『삼국사기』의 열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물론 구전으로 전해지던 이야기도 있었을 것이다. 온달이라는 인물을 평강공주가 보필하여 변화시켜 결국 일국의 부마를 만드는 점을 볼 때, 당대의 여성상보다 훨씬 진보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 혹은 강인한 여성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 ‘숫구이 총각 민담’과의 어느 정도의 유사성, 그리고 동시대에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서동’이야기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문학사에서의 위치가 가법지만은 않다.

문학사적 의의 외에도 당대 시대상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그를 통해 생활 방식이라든지, 낙랑 언덕에서의 행사 등을 온달설화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의의 역시 크다.

---

12) , 『온달이야기 外』(현암사, 2001) / 이기담 , 『온달바보가 된 고구려귀족』(푸른역사, 2004)

## 5. 온달설화의 해석

온달설화를 해석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시점이 있다. 하나는 액면 그대로 평민이었던 온달의 성공이야기, 평강공주의 보필을 받아 대장수 온달로 변해가는 이야기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이야기에 해석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액면 그대로의 해석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시점이 있다. 온달을 몰락귀족이나 왕족 등으로 해석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위에서 다룬 당대 사회의 현실과 설화간의 관계를 이용했다고 본다. 당대 사회는 위에서 다루었다시피 거듭된 전투로 신흥 무신들이 떠오르는 중이었다. 이 당시 전쟁의 피해들로 인해 왕권은 약해지고 신하들의 권력이 커져가던 시기였다. 왕에게는 왕권을 강화하고 기존 귀족들의 권력을 견제할 세력이 필요했는데 이것이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이 관점은 보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당시 몰락귀족이거나 왕족이었던 ‘온달’이 선택되었고, 평강공주를 정략적으로 결혼시켰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실위에 민담인 ‘숫구이 청년’의 요소가 합쳐져 지금의 온달설화에 가까운 모습이 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즉 하급귀족과 공주의 정략결혼을 통한 왕의 기득권 귀족층에 대한 견제로 해석하는 경우이다.

온달설화를 서동설화와 연관 지어 해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서동설화도 평민과 공주의 결혼이라는 유사성과 동시대에 이루어진 이야기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는 서동과 온달설화를 비슷한 선상에 올려놓고 해석한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서동은 평민의 아들이지만 중국의 서적인 북사에 따르면 위덕왕의 아들이라고 나타나 있다. 이는 서동이 비범한 태생의 출신임을 나타내거나 정말 왕실의 적통이 아닌 비적통일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으로 온달과 서동의 이야기를 엮는다. 해석되는 내용은 온달을 몰락귀족이나 왕족으로 보는 견해와 같다. 단지 온달을 당시 시대상으로 이해하여 해석하는지, 서동설화와 연관 지어 해석하는지에 따른 방법론적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온달산성의 모습



★아차산성



★온달동굴



\*7조 전체 참고문헌

- , 『온달설화고찰』, 『학산 조종업 박사 화갑기념논총 동방고전문학연구』(간행위원회, 1990)
- 조면희, 『온달이야기 外』(현암사, 2001)
- 이기담, 『온달바보가 된 고구려귀족』(푸른역사, 2004)
- 정출현, 『김부식과 일연은 왜?』(한겨레출판사, 2012)
- 이도학, 「온달의 남하경로와 전사처 아단성 검증」, 『동아시아고대학 제32집』(동아시아고대학회, 2013)
- 임기환, 「고구려를 다시보자」, 『동아일보』 2004년 5월 3일자

## 6. 온달설화에 대한 논점

온달설화는 삼국사기라는 명백한 사료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논점이 존재한다. 기존 학자들이 제시해 놓은 관점과 해석만으로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 보다는 여러 논점과 다양한 해석에서의 접근을 통해 자신만의 해석이나 견해를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번에는 온달설화에 얽힌 논쟁에 대해 알아보겠다.

먼저 온달설화가 실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sup>13)</sup>이 있다. 정출헌이라는 분은 '열전' 권5에 온달과 함께 실려 있는 을파소, 김부직, 녹진 등 9명의 전기는 본기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의 삶을 기록했다. 하지만 온달은 삼국사기 어느 곳에서도 이름은 물론이고 그가 거둔 전공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한다. 특히 온달은 양강왕 때 전사했고, 이 양강왕이 평강왕의 뒤를 이었다 기록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 평강왕이 양강왕의 아들이다. 이런 점을 참작하면 온달은 실존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유가적 역사서술의 기본원칙을 김부식은 왜 외면 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글을 쓰는데 이는 당시 김부직이 말하고자 했던 바를 삼국사기를 통해 말하고자 했다고 그는 분석하고 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국사기 곳곳에 신의를 가장 큰 덕목으로 김부직이 꼽고 있다고 밝힌다. 그는 즉 김부직이 신의에 대한 말을 하기 위해 온달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세웠다고 생각하며 온달설화의 사실성에 대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온달이 죽은 아단성에 대한 논점도 있다. 온달은 아단성에서 적과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다고 전해진다. 현재 충북 단양군 영춘면에 있는 을아단성(일명 온달성)을 온달성으로 보고 있다. 온달성 동북쪽 절벽 아래에는 온달굴이라는 굴도 있다. 하지만 이 성이 온달성이 아니라 서울과 구리의 경계에 있는 아차산성을 아단성으로 보기도 한다. 한수 이북의 땅을 수복하고자 군사를 청하여 출정했다는 기록을 통해 한수를 '한강'으로 해석하여 한강의 이북이기 때문에 충청도 인근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주장은 고구려 시대의 한강은 고구려말로 아리수<sup>14)</sup>였고, 이를 통일신라 이후의 삼국사기의 편찬자들이 한수라고 표현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수 있으며, 고구려가 강성할 시기에 세워진 '광개토 대왕릉비'에 의하면 고구려가 백제에게서 빼앗은 64개의 성 중, 아단성이 있다고 한다. 또한 만약 아단성이 아차산성이라면 백제는 고구려와 국경을 맞대고 수도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런 상황이라면 천도가 맞는 판단이고, 천도가 없던 것을 감안하면 아차산성은 아단성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점에서 동일한 한강이라는 곳으로 흐르는 수계를 끼고 있던 을아단성을 아단성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라에게 빼앗긴 땅을 수복하기 위해 출정했다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서울 아차산성에서 죽었다는 것은 역사적 내용상 모순이라며 반박한다.<sup>15)</sup>

온달설화의 창작 순서에 대한 논점도 있다. 이 논점은 온달이 실존인물이고 하급귀족 출신이라는 전제를 하고 주장을 한다. 먼저 평강공주와 원래 결혼을 하게 되어있던 상부 고씨는 귀족중에서도 최상위에 속하는 귀족이었지만 온달의 뛰어난 무예실력과 후주와의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이를 신망한 평원왕이 자신의 공주와 결혼시켰고, 이러한 과정이 순탄치만도 않았고 주변 귀족들의 눈총을 샀음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바보온달과 울보 평강공주라는 이야기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sup>16)</sup>

13) , 『김부직과 일연은 왜?』 (한겨레출판사, 2012)

14) 광개토대왕릉비에 아리수라고 적혀있다.

15) 대표적으로 이도환교수가 있다. 참고 : 이도환, 「온달의 남하경로와 전사처 아단성 검증」, 『동아시아고대학 제32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3)

16) 임기환, 「고구려를 다시보자」, 『동아일보』 2004년 5월 3일자 참조.

## 8조 - 원호

### 1. 원호의 생애

20141123 서예림



원호[元昊](1397년~1463년)는 단종에 대한 절의를 지킨 생육신(生六臣)의 한 사람이다. 본관은 원주(原州), 자는 자허(子虛), 호는 관란(觀瀾) 또는 무향(霧巷)이며 별장을 지낸 원헌(元憲)의 셋째아들로 지금의 원주시 개운동 송림에서 출생했다. 어머니 역시 원주 원씨로 국자감 진사를 원천상(元天常)의 딸이자 원천석(元天錫)의 조카딸이었다.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하고 글 읽기를 좋아하여서 15세를 넘어서는 사서삼경에 통달하고 도학군자라는 칭호를 듣게 되었다.

1423년(세종 5) 26세의 나이에 세종이 경회루에서 친히 실시한 식년문과에 급제한 뒤, 집현전 학사로서 각종 편찬사업에 참여 하였으며, 문종 때 집현전 진제학이 되었다.

그러나 1453년(단종 1) 계유정난 때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이 김종서(金宗瑞) 등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자, 병을 구실로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원주시 판부면 남송으로 돌아가 은거했다. 그 뒤 1456년(세조 2) 성삼문(成三問) 등의 세조 제거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다음해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영월 청령포에 유배되자, 단종을 가까이 모시기 위해 청령포 상류인 서면 신천리 바깥 시내 서남 절벽 위에 관란재(觀瀾齋)를 짓고 조석으로 영월 쪽을 바라보며 단종의 안위를 걱정했다.

또한 유배지를 지키는 나졸들의 눈을 피해 조려, 이수형과 함께 영월을 찾아 단종의 문후를 드리기도 했다. 임금의 원통함을 달래주기 위해 채소와 과일을 준비하고 나뭇잎에 글을 적어 커다란 함지박에 담아 띄우면, 그 함지박은 굽이치는 물길을 따라 단종이 자주 오르내리던 청령포 노산대 밑에 머물렀다. 그리고 단종이 원호가 보낸 글을 읽고 나면, 빈 함지박은 또 다시 여울 살을 따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곤 한다.

1457년(세조 3) 금성대군이 다시 단종 복위를 꾀하다가 발각되자 단종은 영월 관풍헌에서 세조가 내린 사약을 받고 승하하였다. 단종이 승하하자 원호는 초막에서 단종이 승하한 곳을 향하며 통곡했다. 그 후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로 들어가 토굴을 파고 살면서 아침저녁으로 절하고 곡하며 부모상을 치르듯 3년 상을 마쳤으며 이 후 계속 원주에 칩거하였고 관직에 있던 조카 효연(孝然)이 찾아와 뵈기를 청했으나 끝내 거절하였다. 세조가 호조참의로 임명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관복을 입은 사람 또한 대하지 않았다. 또 단종의 능이 집의 동쪽에 있다 하여 앓을 때나 누울 때나 반드시 동쪽을 향했다. 그러면서도 농민을 위해 권침(權琛)과 함께 월계도(月計圖)를 만들어 일 년 농사의 풍흉을 점쳤다.

1703년(숙종 29) 원천석(元天錫)의 사당에 배향되었고, 1782년(정조 6) 생육신인 김시습(金時習), 남효온(南孝溫), 성담수(成聃壽)와 함께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또한 그 절개를 찬양하여 고향에 정문이 세워지기도 했다. 함안 서산서원(西山書院), 원주 칠봉서원(七峰書院)에 제향 되었다. 또한 정조 임금은 교지와 함께 시호는 정간(貞簡)이라 하고 토실마루에 모현사(慕賢祠)라는 사당을 세워 원호의 절의정신을 기렸다. 또한 1845년(헌종 11) 초막 자리에 원호의 호를 딴 관을 짓고 홍양호가 찬하여 유허비를 세웠다.

참고문헌: 한국브리태니커회사, 브리태니커세계대백과사전17권, 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92

## 2. 단종 폐위 사건과 원호

20141132 이예나

1450년 2월 세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문종은 대부분의 시간을 병상에서 보내다가 1452년 5월 사망하였다. 문종의 비이자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 권 씨도 출산 후유증으로 사망하였고, 이제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세자가 문종을 이어 단종으로 즉위하게 되었다. 이 때 김종서가 좌의정, 황보인이 우의정이 되었다. 이때부터 왕은 형식적인 결재만을 한 채 모든 정사는 의정부에서 관할하는 의정부 서사제가 본격화되었다. 김종서와 황보인은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수양대군이 아닌 세종의 3남인 안평대군과 손을 잡았고, 이것은 ‘왕실대표’임을 자처한 수양대군을 더욱 자극하였다.

김종서 등 신하들이 어린 왕을 핑계 삼아 권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수양대군은 칼을 갈았다. 그는 김종서와 안평대군의 제거에 몰두하며, 차근차근 반격을 준비해나갔으며, 수양은 심복들을 모아 치밀하게 거사를 준비했다. 거사 1년 전인 1452년 9월 단종의 즉위를 인정하는 명나라 황제의 사은사를 자청하며 자신에게는 권력욕이 없다는 것을 알려 대신들의 견제를 풀게 하고, 귀국 후 본격적으로 휘하에 재사들과 무사들을 끌어들이는 수양은 무엇보다 정국을 장악하고 있는 김종서의 제거만이 실추된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 믿었다. 수양대군의 모사꾼 한명회는 김종서와 황보인의 집에 염탐꾼을 들여 이들의 동선을 파악하였다.

마침내 1453년 10월 10일이 거사일로 잡혀졌다. 수양은 거사 당일 직접 김종서의 집을 방문하였다. 김종서는 크게 경계하지 않고 있다가 수양의 심복들에 의해 아들과 함께 철퇴를 맞았다. 대호(大虎)라는 별명으로 여진족에겐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인물이었지만, 수양대군의 계획된 기습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수양은 김종서 살해 후 이미 작성되어 있는 살생부에 따라 정부의 핵심 인물들을 제거하였으며 황보인, 조극관, 이양 등 살생부에 포함된 인사들은 처형되었고, 정인지, 신숙주 등 생부에 포함된 인사들은 목숨을 부지하고 세조의 참모가 되었다. 수양의 동생 안평대군은 강화로 유배한 후 사사(賜死)하였다. 이것이 단종 원년인 1453년에 일어난 수양대군의 쿠데타, 즉 계유정난의 대체적인 전말이다.

계유정난이 있던 날 단종은 수양에게 모든 군국의 중사를 결정하게 했다. 수양이 정권과 병권을 완전히 장악한 것이다. 이제 단종은 허위를 지키고 있을 뿐 실권은 완전히 수양에게 넘어가 있었다. 마침내 1455년 윤 6월 수양은 조카 단종을 압박하여 상왕으로 밀어내고 왕위에 오르게 된다.

단종이 영월로 쫓겨나자 원호는 세상과의 접촉을 끊고 살았으며, 영월 서쪽에 집을 짓고 아침저녁으로 영월 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원호는 직접 영월을 찾아가 단종의 문후를 드리기도 했다. 1457년 단종이 죽은 후 세조가 원호에게 호조참의 벼슬을 내렸으나 원호는 끝내 거절하였다.

참고문헌 : 신병주, <조선을 움직인 사건들>, 새문사, 2009

### 3. 사육신의 단종 복위운동과 원호

20131130 이수진

강물도 한스러워 목메어 못 흐르고  
갈대꽃 단풍잎엔 찬 바람 불어오네  
알겠노라 여기는 장사 땀 언덕인데  
임의 혼령 어디갔나 달빛만이 밝게 비치네

강원도 영월 청령포에서 위의 내용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위 시조의 작자는 문관 원호로, 단종에 대한 충을 노래하였다고 본다. 그 내막은 이와 같다.

1453년(단종1년),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세조)이 계유정난을 통해 권력을 독차지하였다. 그리고 1455년(세조1년),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했다. 그러자 단종의 충신이었던 집현전학사 출신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 하위지(河緯地), 이개(李塏), 유성원(柳誠源) 등 문관은 무관인 유응부(兪應孚), 성승(成勝), 박쟁(朴疇) 등과 모의하여 그들의 임금 단종을 복위시킬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들은 1456년(세조2년) 6월 초하루 창덕궁에서 열리는 명 사신 초대연의 자리를 구실로 거사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이날 세조 제거의 행동책을 맡은 별운검(別雲劍 : 임금의 신변을 호위하는 임무를 맡은 무신)이 갑자기 연회에서 제외되어 거사 계획은 실행 일보 직전에 실패하게 되었다. 거사가 좌절되자 동조자였던 김질(金礪)과 그의 장인 정창손(鄭昌孫) 등은 뒷일이 두려워 세조에게 단종 복위 음모 계획을 밀고했고 세조는 연루자들을 모두 잡아들여 스스로 이들을 문초하였다. 사육신과 그 밖의 연루자가 모두 처참(處斬)되고 단종 복위거사는 실패로 돌아갔다.

때문에 오히려 단종이 이에 화를 입어 영월 청령포로 귀양하게 되었다. 이에 세조의 1453년 계유정난 이후 고향인 원주로 돌아가 은거하던 원호는 급히 청령포로 달려갔으나 도강할 배편도 없었고 국법이 지엄해 단종에게 접근할 방법이 없어 탄식했다. 그 후 영월 서쪽에 있는 사내평이라는 곳으로 거처를 옮긴 뒤 평창강 물줄기가 흐르는 강 옆에 초막을 짓고 동쪽에 계신 단종을 생각하며 동쪽으로 흘러가는 강물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그리워했다. 원호 선생은 단종이 계신 곳을 우러러 바라보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면서 자신의 심정을 노래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도민일보 2006년 4월 4일호

<http://www.kado.net/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250190>

네이버 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4381&cid=1592&categoryId=1592>

#### 4. 원호의 ‘간밤에 우던 여흘’

20131138 최양선

‘간밤에 우던 여흘’

- 원 호 -

간 밤의 우던 여흘 슬피 우러 지내여다

이제야 생각하니 님이 우러 보내도다

저 물이 거스러 흐르고저 나도 우러 네리라<sup>17)</sup>

원호는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키자 벼슬에 뜻을 버리고 고향인 원주로 돌아가 은거하였다. 권력을 탐한 수양대군이 단종을 영월로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자 그 또한 영월 서쪽에 관란재(觀瀾齋)를 짓고 그 곳에 살며 단종을 사모하며 눈물짓는다. 결국 어린 임금 단종이 운명하자 단종을 그리며 지은 시가 이것이다.

초장은 현대어로 ‘지난밤에 울며 흐르던 여울물이 슬프게 울면서 지나갔도다.’라고 풀이된다. 원호의 관란재는 영월 동강 청령포 서쪽 상류인 사내평에 있었는데 실제로 여울물이 보이는 곳이었다. 원호는 이 여울물을 보며 단종을 그린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강물이 흐를 때 나는 소리는 꺾어지는 부분의 돌이나 큰 바위들에 부딪히는 자그마한 소리이다. 돌과 바위들이 원호의 후회, 미련으로 본다면 여울이 흐르는 소리는 그에게 울음으로 들릴 수 있겠다. 여울물이 흐르는 소리를 슬퍼하여 울며 흐른다는 의인법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공감을 이끌어낸다.

중장을 현대어로 풀이하면 ‘이제야 생각해 보니 임이 울어서 보내는 소리였도다.’라는 내용이다. 지난밤에 슬피 울며 흘러간 여울물이 이제야 생각해 보니 임 즉 단종이 흘러보낸 울음이었다는 것이다. 지난밤에는 느끼지 못했던 임의 슬픔이 이제야 느껴진다는 화자의 고백이 안타깝고 가슴에 사무치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종장은 ‘저 물이 거슬러 흘러가도록 하고 싶구나. 그리하면 나도 울어 내 마음을 보내리라.’로 풀이된다. 종장을 두 문장으로 구분하겠다. 먼저 물이 거슬러 흘러간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이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강물을 다시 아래에서 위로 보낸다는 것이니 말이다. 물이 거슬러 흐르게 하는 것은 시간을 되돌리는 것뿐이다. 즉 자연의 이치를 부정해서라도 두 번째 문장처럼 자신의 비통한 마음을 알리고 싶다는 것이다. 시간을 되돌리고 그를 이런 처지로 만든 수양대군을 벌한다든지 단종을 숨긴다든지 그런 계획이 아니다. 어린 임금 단종이 가엾게 운명을 다한 후 그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이 한스럽게 느껴지는 마지막 구절이다.

또한 초장의 슬프게 울며 흐른 여울물은 중장에서는 임의 슬픔으로 또 종장에서는 나의 슬픔으로 연상된다. 점차 커지는 절절한 슬픔이 비통하게 느껴진다. 흐르는 여울물을 시간으로 치환하면 더욱 화자의 심경이 이해된다. 흘러간 시간을 거슬러서 화자의 마음을 어떻게든 임에게 알리고 싶다는 심정은 사육신처럼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후에 생육신으로 평가될만한 원호의 연군지정과 충정, 절개를 보여준다.

17) , 청구영언과 가사(해의:하), 상감교재사, 1996

## 5. 원생몽유록(元生夢遊錄)

20141110 김수현

원생몽유록은 생육신의 한 사람인 원호(元昊)를 주인공으로 하여 사육신과 단종의 사후생활을 그린 작품이다. 「원생몽유록」은 이본이 매우 여러 개 존재하는 작품 중 하나인데, 이본마다 작자 표지가 서로 달라 임제 이외에 김시습, 원호 등이 작자로 예상되고 있다. 작자를 원호로 본 것은 주인공인 원자허(元子虛)의 ‘자허(子虛)’가 원호의 자(字)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역사 사실을 바탕으로 쓰였다고 해도, 허구 서사물에 자신을 노출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특히 그것도 세조의 왕위 찬탈에 대해 비판적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에 자신을 주인공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았겠냐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임제(林悌, 1549~1587)의 경우, 이본 중 일부가 ‘임제소기(林悌所記)’라고만 쓰고 있을 뿐 ‘임제 作’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 있어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지만 작자를 밝히고 있는 이본 중 많은 수가 임제를 작자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황여일(黃汝一)의 『해월문집(海月文集)』에 「원생몽유록」에 나오는 해월거사의 시와 논평이 ‘제임백호원생몽유록(題林白湖元生夢遊錄)’, ‘서임제백호원생몽유록후(書林白湖元生夢遊錄後)’라는 제목으로 각기 실려 있어 임제가 지었다는 설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력하게 평가받고 있다.

주인공 원자허는 가난하지만 정의로운 선비이다. 가을밤에 달빛을 이용하여 독서를 하다가, 밤이 깊고 정신이 어지러워 책상에 기대어 잠이 들으로써 꿈속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원자허가 꿈속에 신선이 된 기분으로 어떤 강변에 다다르자, 한 선비가 나와 영접을 한다. 선비를 따라 정자로 가니, 왕자의 의관을 한 단종과 복식을 갖춰 입은 다섯 신하가 모여 있었다. 원자허는 단종을 알현하고 신하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먼저 복건을 쓴 사람이 중국 고대의 성왕인 요순, 우, 탕이 선위를 통해 왕이 된 것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단종은 그를 타이르며 네 성왕은 죄가 없고 다만 그들의 양위를 빙자한 자가 도적이라고 말한다. 이어서 박팽년, 성삼문, 하위지, 이개, 유성원이 차례로 세조의 왕위 찬탈에 대하여 품은 원한을 비분강개(悲憤慷慨)조의 시로 읊고, 이후 복건 쓴 사람과 원자허도 애절한 심회를 시로 읊었다. 마지막으로 뒤늦게 참석한 무신 유응부가 자신의 강개한 심정을 시로 표현하였다. 그 순간 벼락 치는 소리가 나서 원자허는 꿈에서 깨어난다. 자허에게 꿈 이야기를 들은 해월거사는 현명한 임금과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화를 당한 것에 대하여 하늘을 원망한다.

‘원생몽유록’에는 당대의 역사, 사회 문제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때문에 세조의 왕위 찬탈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작가의 인식이 드러난다. 또한 정치권력의 모순 및 인간사의 부조리함을 폭로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에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금기였다. 그럼에도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은 불의를 미워하고 악자를 동정하는 인간의 마음과 유교적 충의 사상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작가 의식의 대변자(해월거사)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원생몽유록’을 기존의 다른 몽유록들과 특징지을 수 있다.

참고문헌 : 임제, <원생몽유록(元生夢遊錄)>

이병철, 임제(林悌)의 원생몽유록(元生夢遊錄)재고, 한민족문화연구, 한민족문화학회, 2008

조현우, 몽유록의 출현과 ‘고통’의 문학적 형상화,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조현우, 원생몽유록(元生夢遊錄)의 리얼리티 생성 방식, 한국고소설학회, 2000

## 6. 원호유허비 및 관란정(元昊遺墟碑 및 觀瀾亭)

20141128 유수호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에 위치한 원호유허비 및 관란정(堤川元昊遺墟碑 및 觀瀾亭), 줄여서 ‘관란정’은 1994년 6월 24일에 충북시도 기념물 제 92호에 등재되었다. 건립 시기는 1845년(헌종11)에 지어졌다고 하지만 백사 이항복(1556~1618)이 관란정에 올랐던 기록이 있어 1618년 이전에도 이미 관란정의 존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후에 이 ‘관란정’은 1941년에 개축되었으며 1970년과 1987년에 다시 고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규모는 6347미터 제곱이고 앞면이 두 칸 옆면이 두 칸 정도이다.



‘관란정’은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에 위치한 조선시대 누정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유래는 이렇다. 단종이 세조에게 왕위를 뺏기고 노산군으로 강봉된다. 그러자 금성대군이 단종의 복위를 꾀하지만 세조에게 발각되고 단종은 사약을 받고 영월에 묻히게 된다. 단종이 죽자 생육신 중 한 사람인 원호는 단종을 그리면서 서쪽 강가에 단을 세우고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 영월을 향해 절을 올렸다고 한다. 그런 원호가 죽은 뒤 원호의 후손과 유학자들이 원호의 충정을 기리고자 1845년(헌종11)에 비석과 정자를 세우고 그의 호를 따라 ‘관란정’이라 하였고 그 옆에 유허비도 같이 세웠다고 한다.

‘관란정’은 정면 2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겹처마 정자이다. 건물은 동향을 하고 있고, 기단은 자연 암반 위에 토단을 마련하였다. 가구 형식은 5양가(五樑架)로서 공포는 간결하게 짜여 있다. 원호 유허비는 기초석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자연석 위에 비석을 조성하여 세웠다. 비문은 다른 비문과 달리 붉은색 글씨로 새겨 놓았다. 크기는 높이 174cm, 너비 54cm, 두께 25cm이다. ‘원호 유허비’는 비문이 일반적인 비문과 달리 붉은색 글씨로 쓰였다는 점과 기초석은 별도로 만들지 않고 자연석 위에 비석을 세웠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원호의 충절이 깃든 ‘관란정’에는 얹힌 시한편이 있고 내용은 이렇다.

우도빙란감구심(偶到憑欄感舊深) [우연히 이르러 난간에 기대 보니 옛 감회 깊어라]  
선생당일매등림(先生當日每登臨) [선생은 그 당시 매일 올랐었네]  
차정불위소요건(此亭不爲逍遙建) [이 정자 소요하러 세운 것이 아니니]  
읍혈단충관고금(泣血丹忠貫古今) [피눈물 흘리던 붉은 충심 고금을 꿰뚫었네]

백사 이항복이 ‘관란정’에 올라 당시를 회상하며 원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쓴 시이다.

참고문헌 : 문화재청([www.cha.go.kr](http://www.cha.go.kr)), 디지털제천문화대전(jecheon.grandcul

## 한국문학탐방 참가자 연락처

구분	이름	본인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학과장	김명준		
인솔교수	오춘택		
	이기인		
	이병기		
	박슬기		
	유명희		
조교	박예진		
대학원생	윤숙		
학회장	김태윤		
부학회장	윤희정		
답사부장	최성은		
인솔도우미	임명철		
	최순택		

### 1조

20131124	윤영식		
2012132	이은혜		
20141105	곽동호		
20141111	김예림		
20141124	서채린		
20141133	정서우		
20141135	정예찬		

### 2조

20131133	이지원		
20111136	장성은		
20131118	박 현		
20141108	김민호		
20141112	김은비		
20141141	류창석		
20141125	송수림		
20141134	정예인		

### 3조

20121141	홍정인		
20121130	이다영		
20131109	김연수		
20141101	강윤아		
20141109	김상연		
20141114	김지수		
20141126	안혜린		
20141138	한가희		

### 4조

20131140	허선호		
20121115	남윤주		
20121122	변지선		
20141103	고은지		
20141113	김주민		
20141116	김희인		

20141127	오유나		
20141139	현 진		

5조

20121137	정지안		
20101112	김지예		
20111103	길창인		
20141104	고현하		
20141115	김태영		
20141117	남연재		
20141129	이기일		
20141140	황수정		

6조

20101123	오효석		
20101139	진수연		
20121118	박은지		
20131123	육소연		
20141106	김다혜		
20141118	박상현		
20141120	박은지		
20141130	이상은		

7조

20091111	박경하		
20101115	남동현		
20131113	문소윤		
20141107	김민정		
20141119	박선욱		
20141121	박현경		
20141131	이소정		

8조

20131138	최양선		
20081141	채상윤		
20101103	기드온		
20131130	이수진		
20141110	김수현		
20131123	서예림		
20141132	이예나		